산업인력현황 보고서

- 금융 · 보험 ISC -

2017. 5.

금융 · 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목 차

<요약> ····· Ⅰ

Ⅰ. 서론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금융·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 5
1.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특성 ····· 5
2. 금융·보험산업 이슈 ····· 36
3. 금융·보험산업 전망 ····· 43
4. 소결 ····· 49

Ⅲ. 금융·보험산업 인력 현황 ····· 53
1. 종사자 현황 ····· 53
2. 고용 현황 ····· 62
3. 이직 및 퇴직 현황 ····· 68
4. 소결 ····· 73

Ⅳ. 금융·보험산업 인력 공급 현황 ····· 77
1. 정규교육 현황 ····· 77
2. 비정규교육 현황 ····· 90
3. 소결 ····· 104

Ⅴ.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 ····· 107
1. 수요 전망 ····· 107
2. 공급 전망 ····· 115
3. 소결 ····· 119

Ⅵ. 결론 ····· 123
1. 결론 ····· 123
2. 시사점 ····· 126

참고문헌 ····· 129
참 조 ····· 131

표 목 차

[표1]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추이(2012-2016) ····· iii
[표2] 금융·보험산업 NCS분류 ····· 5
[표3] 금융·보험산업 NCS-업권별 분류 매칭 ····· 6
[표4] 금융·보험산업 표준산업분류(KSIC) ····· 7
[표5] 금융·보험산업 고용직업분류(KECO) ····· 8
[표6] 금융 및 보험산업 GDP ····· 12
[표7]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 12
[표8]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 13
[표9] 생명보험사의 주요 손익 현황 ····· 14
[표10] 생명보험사의 ROA 및 ROE 현황 ····· 14
[표11] 손해보험사의 주요 손익 현황 ····· 15
[표12] 손해보험사의 ROA 및 ROE 현황 ····· 15
[표13] 증권회사 주요 항목별 손익 ····· 16
[표14] 선물회사 수익성 추이 ····· 16
[표15] 부동산신탁회사 손익 추이 ····· 17
[표16]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이익 현황 ····· 17
[표17] 카드사별 순이익 변동 현황 ····· 18
[표18] 저축은행의 주요 손익 현황 ····· 18
[표19] 금융·보험산업의 회사 수 ····· 19
[표20] 금융·보험산업의 국내 영업점포 ····· 20
[표21] 금융·보험산업의 해외 영업점포 ····· 21
[표22] 금융·보험산업 규모별 사업장 현황 ····· 22
[표23] 금융·보험산업 지역별 사업장 현황 ····· 23
[표24] 금융 관련 자격 ····· 24
[표25] 금융부문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 25
[표26] 보험 관련 자격 ····· 26
[표27] 보험부문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 26
[표28] 케이뱅크 출범으로 인한 금융권 대응 ····· 40
[표29] 최근 국내 증권사 M&A 사례 ····· 43
[표30]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추이(2007-2016) ····· 53
[표31]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규모별) ····· 55
[표32]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지역별) ····· 56
[표33] 금융·보험산업 순수 피보험자 현황(연령별) ····· 57
[표34] 금융권역별 임직원 수 추이(2012-2016) ····· 58
[표35] 종사상 지위별 금융·보험업권 취업자 수 증감 ····· 60
[표36] 연령별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 ····· 61
[표37] 전공 계열별 취업자 수(대분류) ····· 61
[표38] 금융·보험산업 구인인원 추이(2009-2016) ····· 62
[표39] 금융·보험산업 구인 현황(직종별) ····· 62
[표40] 금융·보험산업 채용 현황(직종별) ····· 63
[표41] 업권별 채용현황 ····· 63
[표42]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 64
[표43] 연령별 채용현황 ····· 64
[표44] 근무기간별 채용현황 ····· 65
[표45] 학력별 채용현황 ····· 65
[표46] 2016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 ····· 66
[표47] 금융·보험산업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 67
[표48]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 68
[표49] 금융·보험산업 이직자 추이(2010-2016) ····· 68
[표50] 산업간 경력취득자 노동력 이동현황 ····· 69
[표51] 금융·보험산업 상실사유별 상실자 현황 ····· 70
[표52]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 71
[표53]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 71
[표54]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 72
[표55]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 72
[표56]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 77
[표57]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수 추이 ····· 78
[표58]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 ····· 78
[표59] 금융·보험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 79
[표60]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추이 ····· 81

[표61]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자 추이 ····· 82
[표62] 업권별 학력 비중 ····· 82
[표63] 전문대학교 학교 수 추이 ····· 83
[표64]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학과 수 추이 ····· 83
[표65]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학생 수 추이 ····· 84
[표66]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졸업생 추이 ····· 84
[표67] 업권별 학력 비중 ····· 85
[표68] 4년제 대학교 학교 수 추이 ····· 85
[표69]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학과 수 추이 ····· 86
[표70]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학생 수 추이 ····· 86
[표71]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추이 ····· 87
[표72] 업권별 학력 비중 ····· 87
[표73]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 87
[표74] 사회계열 대학원 학과 수 추이 ····· 88
[표75] 사회계열 대학원 학생 수 추이 ····· 89
[표76] 사회계열 대학원 졸업생 추이 ····· 89
[표77] 업권별 학력 비중 ····· 90
[표78] 구직자 훈련과정 현황 ····· 92
[표79] 근로자 훈련과정 현황 ····· 93
[표80]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세분류 항목 ····· 94
[표81] 2015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현황 ····· 95
[표82] 2016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현황 ····· 96
[표83] 부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업기초능력 관련 ···· 100
[표84] 부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 100
[표85] 울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업기초능력 관련 ···· 101
[표86] 울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 102
[표87] 전북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 103
[표88]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 ····· 107
[표89]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직종별) ····· 107
[표90]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 전망 ····· 109
[표91] 금융 및 보험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 110
[표92]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 현황 ····· 111
[표93]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 111
[표94]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 111
[표95]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 112
[표96]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 112
[표97]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 113
[표98]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 113
[표99]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 114
[표100] 전문대학 사회 계열 졸업생 수 전망 ····· 116
[표101] 금융인력 공급규모: 전공 기준 ····· 117
[표102] 대학원 사회 계열 졸업생 수 전망 ····· 117
[표103] 금융인력 공급규모: 자격증별 기준 ····· 118
[표104] 최근 3개년 업권별 희망퇴직 현황 ····· 127

그 림 목 차

[그림1] 국내은행의 '03년 이후 연도별 ROA 및 ROE 추이 ·· 13
[그림2] 투자 및 신용분석가 특성 ····· 28
[그림3] 자산운용가 특성 ····· 29
[그림4]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특성 ····· 30
[그림5] 증권 및 외환딜러 특성 ····· 31
[그림6] 손해사정사 특성 ····· 32
[그림7] 출납창구 사무원 특성 ····· 33
[그림8]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특성 ····· 34
[그림9] 금융 관련 사무원 특성 ····· 34
[그림10] 신용추심원 특성 ····· 35
[그림11] 보험 관련 영업원 특성 ····· 36
[그림12] 은행 채널별 입출금·자금이체 업무 거래 비중 ····· 38
[그림13] 2016년도 시중은행 신규 채용 이공계 비중(%) ····· 50
[그림14]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53
[그림15] 보험·연금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59
[그림16] 금융·보험업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60
[그림17] 2012-2016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 ··· 81
[그림18]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 추이 ····· 108
[그림19]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비중 전망 ····· 109
[그림20] 금융·보험업권 비자발적 이직자수 ····· 115
[그림21] 대학교 전공 계열별 졸업생 수 전망 ····· 116

요 약

□ 서론

○ **(조사배경 및 목적)**

- (금융·보험산업의 변화 및 인력 현황) 금융산업의 구조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 은행 출범 등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점포 축소로 인해 인력과 신규채용이 감소되고 있음

- (전문적인 금융인력 양성 및 관리 필요) 현재와 같은 금융·보험산업 인력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금융 분야로 관심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금융인력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함

- (보고서 활용 분야)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산업과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향후 금융·보험산업의 전략분야 발굴 등과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 **(연구방법)** 문헌(보고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금융·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함

□ 금융·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 **(현황)** 2016년 금융·보험산업의 GDP는 80.5조로 전 산업대비 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2007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여신 등의 비중은 증가함

* 2016년말기준 은행 61.69%, 보험 22.13%, 증권·선물 8.8%

-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회사 수는 자산운용사의 증가 등으로 2012년도 대비 12개 증가하여 약 0.4%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국내 영업점포는 은행(595개), 보험(894개), 증권(446개) 등 1,875개가 감소함(2012년 대비 9.4% 감소)

○ **(주요 이슈)** 핀테크(fintech) 발전에 따른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창구사무원,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영업점 기반 관련 인력의 고용 감소 추이는 지속되는 반면 치열한 핀테크 경쟁에 돌입한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공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함

- 특히, 2017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증권사·P2P 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는 한편,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가 상반기중 영업 개시 예정임

- 국내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해외진출 강화 및 금융투자회사의 M&A가 진행 중임.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 간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점포 신설 및 증권회사의 대형점포 전략 역시 점포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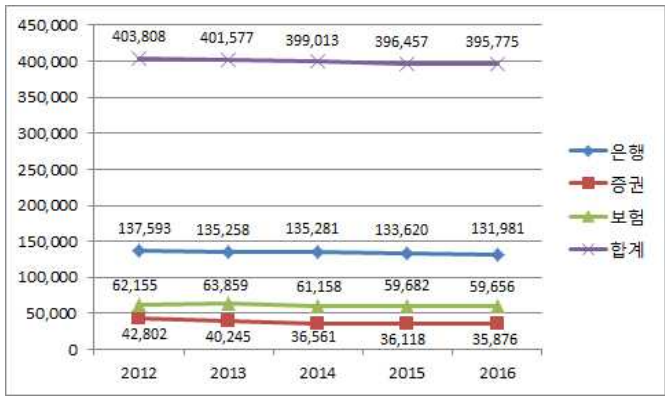
○ **(전망)** 2017년 금융·보험산업 전망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등에 따른 경쟁 격화 및 저수익 구조 고착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보험산업 인력 현황

○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2016년말 기준 은행이 131,981명(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95,065명, 24%), 보험사(59,656명, 15%), 증권사(35,876명, 9%)가 그 뒤를 이음

- 종사자 수는 2012년 대비 증권(6,926명), 은행(5,612명), 보험(2,499명)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2,843명), 농업협동조합(2,765명), 자산운용사(1,517명), 리스사(858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33명이 감소함

[표1]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추이(2012-2016)



- 특히, 종사자 수 산정시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사는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채널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생명보험 33,601명(25.2%), 손해보험 11,173명(7%)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또한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구인·채용 현황)** 2016년 금융·보험산업 구인인원은 10,775명으로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채용인원은 7,662명으로 구인인원의 71.1%에 해당됨

- 은행·보험·여신의 경우 신규 채용을 선호하였으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은 경력 채용을 선호함. 또한 신규 채용의 경우 20대(64.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력 채용의 경우 30대(47.5%)가 주를 이룸

- 신규 및 경력 모두 정규직보다 전문계약직 중심의 비정규직의 채용 비율(신규 56.7%, 경력 54.3%)이 더 높았음

○ **(미충원 및 부족 현황)** 금융·보험산업의 미충원율은 3.9%로 전산업 평균(12.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이직 및 퇴직 현황)**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보험산업 이·퇴직자 수는 총 24,286명으로 자발적 이직(65.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금융·보험산업 인력 공급 현황**

○ **(공급 규모의 축소 전망)** 정규교육 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비정규교육 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도 일부 직무를 제외한 분야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학력별 취업 현황 및 특징)**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한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졸업자 중 약 3~4%만이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권별 고졸자 비중을 보면, 고졸 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은행(23.2%)이나 신협(21.5%)에서는 그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업권별 대졸자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졸 학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든 업권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을 살펴보면 경영/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문/사회, 공학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증권/선물(12.3%)과 자산운용/신탁(23.5%)에서는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재직자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 요구)** 금융·보험 관련 전문 교육을 비금융·보험 종사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

○ **(수요전망)**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금융·보험산업의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의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전산업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 내 부족률은 0.8%에 그치고 있어 전산업의 부족인원과 부족률(2.6%)에 비해 부족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의 중장기 취업자 전망을 살펴본 결과 2014~2019년 동안 취업자가 소폭(28,000명) 감소할 할 것으로 예상됨(한국고용정보원, 2015)

○ **(공급전망)** 대학의 전공별 졸업생 수 전망 결과 전공별로 감소 시기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전공에서 대학의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고용정보원, 2015)

- 한편, 2011~2017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는 매년 53,19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음(한국금융연구원, 2016)

- 금융인력 자격별 인력공급 전망을 살펴보면 금융 인력은 2017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보험 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 **(수요를 예측한 공급대응 필요)** 최근 금융·보험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IT 융합인력 등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 전략이 필요함

○ **(새로운 자격과정 신설 필요)** 향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 개발과 질 관리를 위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자격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산업 및 고용 전망)** 금융·보험 산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함께 가계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영업환경 불안정, 인터넷 전문은행 등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등에 따른 경쟁 격화 및 저수익 구조 고착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핀테크 발전에 따른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지점수 감소와 이를 계기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의 구조조정 현상 지속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고용환경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임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전문계약직 및 경력직 증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근속연수 감소로 종전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로서 금융·보험산업의 고용 특성마저 점차 퇴색되고 있음

○ **(디지털화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금융의 디지털화는 기존 금융시장의 인력구조와 인프라 등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네트워크만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음

-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영업점의 급격한 축소와 온라인 등 판매채널의 확대는 출납창구사무원 및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영업점에 기반하여 근무하던 전통적 핵심 금융산업인력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으로 작용함

- 반면, 핀테크 관련 사업 및 조직의 확대에 맞춰 최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는 등 IT 융합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 등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등 공급 체계 미흡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블록체인·바이오인증 등 관련 인력의 수요도 증가함

○ **(수익원 다변화 및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유망 분야)** 저금리·저성장·고령화시대의 금융환경 및 제도변화에 맞춰 글로벌 시장 공략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특정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시장 규모(1741조)의 성장 및 사모펀드(PEF) 활황, 신탁업 활성화 및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시행 등 정책적 지원

- (기술금융인력) "관계형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추이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기술력 및 리스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

- (자산운용전문가) 금융회사 보유자산의 운용 수익확대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퇴직연금, 노후자금 관련 투자자산 운용

- (보험계리 전문가) 보험상품개발 자유화에 따른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2020년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적용에 따른 위험관리 필요성 증가

- (글로벌 금융인력)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 확대 적극 추진

□ **시사점**

○ **(인력수요를 고려한 공급체계 개편 요구)** 금융4.0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보험산업의 인력구조 개편에 맞춰 금융환경 변화와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이 융합된 신규 인력의 집중적인 양성

- IT융합인력 및 자산관리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금융회사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도 필요

○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핀테크와 모바일뱅킹 확산을 계기로 고비용·저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금융·보험 산업의 고용충격 완화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퇴직자 대상 산업 내 재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함

* 2014년(4,393명), 2015년(5,146명), 2016년(5,332명) 등 최근 3년간 총 14,871명 퇴직

Ⅰ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득증대 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금융서비스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여러 형태의 금융업이 도입되면서 점차 그 구조가 다양해지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한국금융연구원, 2015)

○ 또한 금융산업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며, 실물부분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산업임(한국금융연구원, 2016)

□ 금융·보험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어 옴

○ 2016년 금융·보험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1.0%에 달하며(한국금융연구원, 2016), 월평균 임금은 571만원으로, 전 산업 342만원에 비해 1.7배 많음(고용노동통계포털, 2016)

□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둔화와 구조 조정,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인력 미스매치로 인해 금융·보험산업 또한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지 않는 실정임

○ 현재 금융계 인력구조는 고연령, 고임금자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2014년 말부터 금융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 바람은 고연령 인력뿐만 아니라 젊은 인력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최근 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 은행 출범 등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점포 축소로 인원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채용 또한 줄고 있는 상황임

□ 현재와 같은 금융·보험산업 인력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금융 분야로 관심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금융인력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함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 은행 등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산업 현황과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향후 금융·보험산업의 전략분야 발굴 등과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연구방법

□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출처의 통계 및 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검토 과정을 거침. 각 장별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특성)**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 보고서 및 보도자료, 삼성증권, 산은조사월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활용함

□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요 현황)**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활용함

○ 한국금융연구원(2016)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는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실시를 위해 국내 1,389개 금융회사 중 1,167개 회사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해 1,38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6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29개 회사의 응답 결과를 분석함

○ 한국금융연구원(2017)의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 확대방안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업 부가가치 증가가 금융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용 확대와 지원 방안을 제시함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7)의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 일자리를 전망함

○ 한국고용정보원(2015)의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 보고서는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센서스, 지역별 고용조사, 각종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이 외에도 고용노동통계포털, 고용보험통계, 통계청,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금융·보험산업 인력 공급 현황)** 금융·보험산업 인력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활용함

○ 정규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16)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를 활용함

○ 비정규교육 현황 분석을 위해 금융·보험전문 교육기관별(금융투자교육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자료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자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2016년도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함

□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 금융·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활용함

○ 수요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2017)의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2017)의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보고서를 활용함

○ 공급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2015)의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2016)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를 활용함

Ⅱ 금융 ·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1.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특성

1) 산업 정의 및 분류

□ **(산업 정의)** 금융·보험산업이란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공급,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 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임(한국고용정보원, 2017)

□ **(산업 분류)** 금융·보험 관련 분류체계로는 NCS 분류, 업권별 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분류 등이 있음

○ **(NCS 분류)** 금융·보험산업 관련 NCS 분류 체계는 2개 중분류(금융, 보험), 9개 소분류(금융영업, 금융상품개발 등) 및 35개 세분류(창구사무, 기업영업 등)로 구성되어 있음

[표2] 금융·보험산업 NCS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기업영업			외환.파생업무
		PB영업			인수업무
		카드영업			증권상장업무
	금융상품개발	여수신상품개발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투자상품개발			무역금융업무
		연금상품개발			
		카드상품개발	보험	보험상품개발	보험동향분석
	신용분석	개인신용분석			보험상품개발
		기업신용분석			보험계리
		여신심사		보험영업.계약	보험모집
	자산운용	펀드운용			보험계약심사
		주식.채권운용			보험계약.보전
		파생상품운용			위험관리
		대체투자			
		신탁자산관리		손해사정	재물손해사정
	금융영업지원	결제			차량손해사정
		채권추심			신체손해사정
		리스크관리			

자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업권별 분류)** 금융업권은 영업행위에 따라 인허가와 감독기준 등이 상이하며, 크게 7개 업권으로 구분됨.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권을 영업행위에 따라 ①은행(제1금융권), ②보험, ③증권/선물, ④자산운용/신탁, ⑤상호저축, ⑥여신전문(카드, 할부금융), ⑦신협으로 구분함

[표3] 금융·보험산업 NCS-업권별 분류 매칭

NCS분류			업권별 분류					
중분류(2)	소분류(9)	세분류(35)	은행	보험	증권/선물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o	o	o	o	o	o
		기업영업	o	o	o	o	o	o
		PB영업	o	o	o	o	o	o
		카드영업	o			o	o	o
	금융상품개발	여수신상품개발	o	o	o	o	o	o
		투자상품개발	o	o	o	o	o	o
		연금상품개발	o	o	o	o	o	o
		카드상품개발	o				o	
	신용분석	개인신용분석	o	o		o	o	o
		기업신용분석	o	o	o	o	o	o
		여신심사	o	o		o	o	o
	자산운용	펀드운용	o	o	o	o		o
		주식.채권운용	o	o	o	o		o
		파생상품운용	o	o	o	o		o
		대체투자	o	o	o	o		o
		신탁자산관리	o	o	o	o		o
	금융영업지원	결제	o	o	o	o	o	o
		채권추심	o	o	o	o	o	o
		리스크관리	o	o	o	o	o	o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o		o			
		외환.파생업무	o		o			
		인수업무	o		o			
		증권상장업무	o		o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o		o			
		무역금융업무	o			o		o
보험	보험상품개발	보험동향분석	o	o				o
		보험상품개발	o	o				o
		보험계리	o	o				o
	보험영업계약	보험모집	o	o				o
		보험계약심사	o	o				o
		보험계약.보전	o	o				o
		위험관리	o	o				o
	손해사정	재물손해사정		o				
		차량손해사정		o				
		신체손해사정		o				

자료: 금융·보험 ISC

○ **(표준산업분류)** 금융·보험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1개 대분류(금융 및 보험업), 3개 중분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8개 소분류(은행 및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등) 등이 있음

[표4] 금융·보험산업 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 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고용직업분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는 1개 중분류(금융·보험관련직), 3개 소분류(금융·보험관련 전문가,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 등), 11개 세분류(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운용가 등)로 구성되어 있음

[표5] 금융·보험산업 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금융.보험 관련직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 딜러
		손해사정인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	금융관련 사무원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출납창구 사무원
		신용 추심원
	보험 관련 영업원	보험 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자료: 통계청. 한국직업분류(KECO)

2) 업권별 구분

□ **(은행/ 일반은행)** 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단기의 예금수입, 대출 및 지급결제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상업은행을 의미함

○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6개(국민, 신한,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지방은행 6개(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그리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은 43개 지점이 영업 중

○ **(업무내용)** 은행업무인 고유 업무 및 부수 업무를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은행법 외의 업무를 겸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함

- 고유 업무는 대출업무와 내, 외국환 업무이며 부수업무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수반하는 업무로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유가증권 투자, RP매매 등이 있고 겸업 업무에는 신탁업과 신용카드업 등이 있음

□ **(은행/ 특수은행)** 일반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의미함

○ **(현황)** 현재 영업 중인 특수 은행은 농협은행주식회사,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5개임

○ **(특징)** 재원조달 면에서 민간으로 부터의 예금수입에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 됨

□ **(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임

○ **(현황)** 보장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회사(2016년 12월 기준 25개), 손해보험회사(2016년 12월 기준 32개)가 있으며 국영보험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이 있음

□ **(증권)**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2016년 12월말 기준 53개의 증권회사가 영업 중

○ 업무는 고유 업무(유가증권 매매, 위탁매매업 등)와 부수 업무(기업매수, 합병의 중개 등)가 있음

□ **(선물)** 장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일반상품, 금융상품 및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거래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2016년 12월 기준으로 5개의 선물회사가 영업 중

□ **(자산운용)** 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는 회사로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며, 펀드의 운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하거나 보내줌

○ **(현황)** 보통 펀드의 투자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2016년 12월 기준으로 165개의 자산운용사가 영업 중임

□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신탁임

○ **(부동산신탁)**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

-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 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2016년 12월 기준으로 11개의 부동산신탁사가 영업 중

□ **(여신전문)**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수요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을 업무로 하며 재원은 채권발행,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로 조달함

○ 1997년 8월 제정되고 1998년 1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규정함

- 2016년 12월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영업 중인 회사는 신용카드 회사 8개, 리스회사 25개, 할부금융 회사 22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1개로 총 86개

□ **(상호저축)** 일정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79개사가 영업 중

○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2001년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함

□ **(상호금융)**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의 일종

○ 농·수·축협중앙회와 시-도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음.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제1금융권으로 분류됨

○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함. 따라서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되며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됨

- 2016년 12월 기준 신용협동조합 904개, 농업협동조합 1,130개, 수산업협동조합 90개, 산림조합 137개가 운영 중

3) 산업 현황

가) GDP 비중

□ **(금융·보험산업 GDP)** 2016년 금융·보험산업의 GDP는 80.5조였으며,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 GDP 비율은 4.92%로 나타남. 금액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기준으로 전 산업 대비 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표6] 금융 및 보험산업 GDP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융·보험 GDP	75,809	72,478	75,860	78,700	80,522
전 산업	1,377,457	1,429,445	1,486,079	1,564,124	1,637,421
전 산업 대비 금융·보험 GDP 비율	5.50	5.07	5.10	5.03	4.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나) 자산비중

□ **(업권별 자산비중)** 2007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여신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8년 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4.32%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11월말)에는 61.69%로 10년 동안 12.63%p 하락하였음

[표7]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은행	71.72	74.32	70.18	67.41	66.20	63.98	63.07	62.84	62.17	61.69
저축은행	2.46	2.39	2.96	2.92	2.14	1.43	1.09	0.96	1.03	1.05
신협	1.16	1.07	1.41	1.61	1.55	1.61	1.59	1.53	1.54	1.54
여신	3.80	3.53	3.69	4.07	4.96	4.81	4.89	4.70	4.75	4.65
보험	15.29	13.60	15.75	17.08	17.67	20.40	21.58	21.84	22.24	22.13
증권/선물	5.46	4.98	5.90	6.79	7.37	7.66	7.66	8.01	8.15	8.80
자산운용	0.11	0.10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금융통계월보(2016.11)

다) 영업실적

□ **(은행)** 2016년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전입전)은 3.0조원으로 전년(4.4조원)대비 △1.4조원 감소(△31.8%)하였으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3%,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6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8%p, △0.93%p 하락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대손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함. 특수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2.9조원 감소하였으나 일반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1.4조원 증가하여 6조원 대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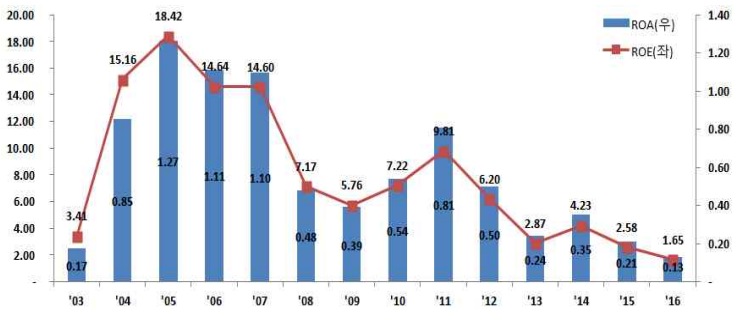
[표8]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13년	'14년	'15년(A)	'16년(B)	증감(B-A)	
					금액	%
국내은행	**4.5**	**6.8**	**4.4**	**3.0**	**△1.4**	**△31.8**
일반은행	4.9	5.3	5.1	6.5	1.4	27.73
시중은행	4.0	4.5	4.1	5.5	1.3	32.51
지방은행	0.8	0.8	0.9	1.0	0.1	6.28
특수은행	△0.4	1.6	△0.6	△3.5	△2.9	465.73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1] 국내은행의 '03년 이후 연도별 ROA 및 ROE 추이



주: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특수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된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여신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반면 일반은행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여신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 2016년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6,933억원으로 전년(3조 5,898억 원) 대비 8,965억원(△25.0%) 감소하였음. 이는 지급보험금 증가율(7.5%)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2%)을 상회하여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2,662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정체된데 기인함

[표9] 생명보험사의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C=B-A)	증감률(C/A)
당기순이익	32,370	35,898	26,933	△8,965	△25.0
보험영업이익	△209,965	△209,244	△220,799	△11,555	손실확대
투자영업이익	215,644	214,121	214,291	170	0.1
영업외손익	34,764	38,719	40,916	2,197	5.7

자료: 금융감독원

○ 2016년 중 생명보험회사의 ROA는 0.36%로 전년(0.52%) 대비 0.16%p 감소하였으며, ROE는 4.14%로 전년(5.83%) 대비 1.69%p 하락하였음

[표10] 생명보험사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B-A)
총자산순이익률(ROA)	0.51	0.52	0.36	△0.16
자기자본순이익률(ROE)	5.92	5.83	4.14	△1.69

자료: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2016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4,681억원으로 전년(2조 7,152억 원) 대비 7,529억원(27.7%) 증가하였음. 이는 렌트차량 제공방식 변경(동종→동급) 등 자동차보험 제도변경으로 손해율이 개선(87.7%→83.1%)되어 자동차보험손실감소(7,382억원) 및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2,433억원)에 기인함

[표11] 손해보험사의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C=B-A)	증감률(C/A)
당기순이익	23,303	27,152	34,681	7,529	27.7
보험영업이익	△25,120	△28,180	△20,372	7,808	손실축소
투자영업이익	57,419	63,413	67,403	3,990	6.3
영업외손익	△1,642	480	△2,070	△2,550	손실전환

자료: 금융감독원

○ 2016년 중 손해보험회사의 ROA은 1.45%로 전년(1.28%) 대비 0.17%p 증가하였으며, ROE는 11.26%로 전년(9.68%) 대비 1.58%p 상승하였음

[표12] 손해보험사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B-A)
총자산순이익률(ROA)	1.26	1.28	1.45	0.17
자기자본순이익률(ROE)	9.46	9.68	11.26	1.58

자료: 금융감독원

□ **(증권회사)** 2016년 중 증권회사(53사) 당기순이익은 2조 1,338억원으로 전년 3조 2,268억원 대비 감소(△1조 930억 원, △33.9%)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4.6%로 전년 대비 2.7%p 감소('14년 : 4.1%→'15년 : 7.3%→'16년 : 4.6%)하였음

○ 주식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익감소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악화됨. 여기에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M&A로 인한 통합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발생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감소함

○ 2016년 중 수수료수익은 7조 4,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4억원 감소(△5.5%)하였으며, 자기매매이익은 2조 4,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5억원 감소(△40.9%)하였음

○ 2016년 중 판관비는 7조 3,132억 원으로 임직원수·순익 감소에 따른 급여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5,924억원, △7.5%)하였음

[표13] 증권회사 주요 항목별 손익

(단위: 억 원)

구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B-A)	증감률
수수료수익(A)	59,760	79,256	74,912	△4,344	△5.5%
수탁수수료	33,598	45,858	37,161	△8,697	△19.0%
IB관련 수수료	9,283	12,294	13,049	755	6.1%
자기매매손익(B)	45,703	41,536	24,531	△17,005	△40.9%
주식관련손익	△1,281	5,402	3,159	△2,243	△41.5%
채권관련손익	61,586	52,139	39,810	△12,329	△23.6%
파생관련손익	△14,602	△16,005	△18,439	△2,434	△15.2%
기타손익(C)	△7,668	△815	215	1,030	126.4%
외환관련손익	3,280	3,130	2,711	△419	△13.4%
판관비차감전 영업이익(A+B+C)	**97,795**	**119,977**	**99,658**	**△20,319**	**△16.9%**
판매관리비	**74,967**	**79,056**	**73,132**	**△5,924**	**△7.5%**
당기순이익	**16,833**	**32,268**	**21,338**	**△10,930**	**△33.9%**

자료: 금융감독원

□ **(선물회사)** 2016년 중 선물회사(5사) 당기순이익은 210.8억원으로 전년(105.5억원) 대비 증가(+105.3억원, 99.8%)하였으며, 이는 파생상품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176억 원 증가함에 기인함

○ 2016년 전체 선물회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5.8%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함

[표14] 선물회사 수익성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5년 (A)	'16년 (B)	'16.1Q	'16.2Q	'16.3Q	'16.4Q	증감 (B-A)	증감률
당기순이익	105.5	210.8	55	62	48	46	105.3	99.8%
ROE	3.3	5.8	1.6	1.7	1.3	1.3	2.5%p	-

자료: 금융감독원

□ **(부동산신탁회사)** 2016년 전체 부동산신탁사(11사)의 순이익은 영업이익(+1,741억 원)과 영업외이익(+358억 원)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2,222억원) 대비 1,711억원(+77.0%) 늘어난 3,933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함

○ 영업수익은 7,862억원으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주택분양시장 호조세 지속 등에 따라 전년대비 2,271억원(+40.6%) 증가함

[표15] 부동산신탁회사 손익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년 대비 증감(률)	
영업수익	3,926	4,491	4,456	5,591	7,862	2,271	40.6
영업비용	2,426	2,841	2,418	2,630	3,160	530	20.2
영업이익	1,500	1,651	2,037	2,961	4,702	1,741	58.8
영업외이익	△18	△43	△68	△26	331	358	-
당기순이익	1,132	1,223	1,481	2,222	3,933	1,711	77.0

자료: 금융감독원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2016년 중 78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순이익은 1조 5,400억원으로 전년(1조 3,217억원) 대비 16.5%(2,183억원↑) 증가함

[표16]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15년(A)	'16년(B)	증감(C=B-A)	증감률(D=C/A)
고유업무 순이익	**27,572**	**28,134**	**562**	**2.0**
할부금융	11,040	11,403	363	3.3
시설대여	13,993	14,091	98	0.7
신기술사업금융	2,539	2,640	101	4.0
이자수익	41,617	43,094	1,477	3.5
조달비용	24,141	23,526	△615	△2.5
판관비	18,627	19,264	637	3.4
대손비용	12,028	11,593	△435	△3.6
당기순이익	**13,217**	**15,400**	**2,183**	**16.5**

자료: 금융감독원

○ 이는 가계·기업대출 증가(14%, 6.7조원↑)로 이자수익(3.5%, 1,477억원↑)이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연체율 하락으로 조달비용(2.5%, 615억원↓)과 대손비용(3.6%, 435억원↓)이 감소한 데다 할부·리스·신기술 등 고유업무의 순이익도 증가(2%, 562억원↑)한데 기인함

□ **(신용카드사)** 2016년 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8,134억원으로 전년(2조 126억원) 대비 9.9%(1,992억원) 감소하였으며, 카드사별로는 삼성을 제외한 7개사의 순이익이 감소함

[표17] 카드사별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신 한	KB국민	삼 성	현 대	우 리	하 나	롯 데	비 씨	계
'15년	7,394	3,345	2,868	2,128	947	191	1,245	2,007*	20,126
'16년	7,266	2,951	3,227**	1,724	740	2	822	1,402	18,134
증 감 (증감률)	△128 (△1.7)	△395 (△11.8)	359 (12.5)	△404 (△19.0)	△207 (△21.9)	△189 (△99.2)	△423 (△34.0)	△605 (△30.1)	△1,992 (△9.9)

자료: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16.1월~12월중 당기순이익은 8,622억원으로 전년 동기('15.1~12월, 6,404억원) 대비 2,218억원 증가(+34.6%)함. 자산(대출금 등) 확대에 따라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증가(+2,580억원)하였으나, 이자이익 증가(+6,321억원)가 이를 상회함

[표18] 저축은행의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5년(A)	'16년(B)	증감(B-A)	증감률
영업손익(A=a+b-c-d)		7,461	9,462	2,001	+26.8
이자이익(a)		24,946	31,267	6,321	+25.3
비이자손익(b)		△594	△1,524	△930	-
차감	판매및관리비(c)	10,519	11,329	810	+7.7
차감	대손충당금전입액(d)	6,372	8,952	2,580	+40.5
영업외손익 등(B)		△1,057	△840	217	-
당기순이익(A+B)		6,404	8,622	2,218	+34.6

자료: 금융감독원

라) 사업체 현황

(1) 금융·보험산업 회사 현황

□ **(회사 수)**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회사 수는 자산운용사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도 대비 12개 증가하여 약 0.4% 성장률을 나타냄

[표19] 금융·보험산업의 회사 수

(단위: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은행	국내은행	18	18	18	17	17
	외은지점	31	32	31	31	35
보험	생명보험	24	25	25	25	25
	손해보험	31	31	31	31	32
금융투자	증권사	61	62	58	56	53
	선물사	7	7	7	6	5
	자산운용사	84	84	86	93	165
	투자자문사	149	156	158	170	159
	부동산신탁	11	11	11	11	11
	종합금융회사	1	1	1	1	1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사	7	8	8	8	8
	리스사	27	27	28	26	25
	할부금융사	19	19	19	20	22
	신기술금융사	12	14	18	24	31
저축은행		93	89	80	79	79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949	942	920	910	904
	농업협동조합	1,164	1,161	1,154	1,133	1,130
	수산업협동조합	90	90	90	90	90
	산림조합	136	136	136	137	137
금융지주회사		12	13	10	9	9
합계		2,926	2,926	2,889	2,877	2,938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 상호금융의 특성상 농업협동조합이 1,130개로 가장 많으며 상호금융 이외 업권에서는 자산운용사(165개), 투자자문사(159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자산운용사는 2012년도 84개사에서 2016년도 165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사는 2012년도 61개사에서 2016년도 53개사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저축은행도 2012년도 93개사에서 2016년도 79개사로 크게 감소함

○ 2012년도 대비 회사수가 증가한 곳으로는 외은지점, 보험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산림조합 등이 있으며, 감소한 곳으로는 은행, 증권사, 선물사, 리스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이 있음

(2) 금융·보험산업 영업점포 및 사업장 현황

□ **(국내 영업점포)**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국내 영업점포는 2012년도 대비 1,875개(△9.4%) 감소함

○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국내 사업체 중 국내은행이 7,103개의 점포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순으로 나타남

[표20] 금융·보험산업의 국내 영업점포

(단위: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은행	국내은행	7,698	7,599	7,401	7,278	7,103
	외은지점	55	56	46	46	48
보험	생명보험	4,807	4,634	4,247	4,072	4,021
	손해보험	3,085	3,176	3,100	3,046	2,977
금융투자	증권사	3,364	3,211	3,000	2,986	2,918
	선물사	79	76	60	62	46
	부동산신탁	12	21	20	20	23
	종합금융회사	4	4	4	5	5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사	216	223	401	400	275
	리스사	133	128	134	131	132
	할부금융사	247	244	225	237	233
	신기술금융사	16	15	11	11	14
저축은행		277	294	324	326	323
합계		19,993	19,681	18,973	18,620	18,118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주1: 생보, 손보의 영업점포 산정 시 보험대리점은 제외

- 신용카드사의 국내 점포수는 2012년도 대비 59개(27.3%)가 증가하였으며 이외 부동산신탁,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의 국내 점포수가 증가함

- 반면, 국내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2012년도 대비 595개(7.7%)가 감소하였으며 외은지점, 보험사, 증권사, 선물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대부분 업권에서 국내 영업점포수가 감소함

□ **(해외 영업점포)**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해외 영업점포는 2012년도 대비 44개 증가하여 약 13.8% 성장률을 나타냄

○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해외 사업체 중 국내은행이 177개의 점포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손해보험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순으로 나타남

○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수는 2012년도 대비 40개(29.2%)가 증가하였으며 이외 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의 해외 점포수가 증가함. 반면, 증권사의 해외 점포수는 2012년도 대비 21개(26.3%)가, 생명보험사의 해외 점포수는 2개(7.4%)가 감소함

[표21] 금융·보험산업의 해외 영업점포

(단위: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은행(금융지주)	142(3)	152(3)	162(3)	170(3)	178(3)
보험	79	80	83	84	81
금융투자	125	124	117	113	112
여신전문금융	20	23	26	26	33
합계	369	382	391	393	407

자료: 금감원 국내금융회사 해외진출현황 및 재무상황(2017.4.6)

□ **(규모별 사업장 현황)** 2016년도 금융·보험산업 규모별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시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56.9%)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으로 인한 것임

○ 가장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였음

[표22] 금융·보험산업 규모별 사업장 현황

(단위: 개)

구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149인	15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이상
중앙은행	0	0	0	0	0	0	0	0	0	0	1
일반은행	36	61	130	68	32	22	24	20	1	1	17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361	707	1,191	315	141	141	114	72	9	9	0
투자기관	179	50	37	9	9	6	0	4	0	1	3
여신금융업	550	132	110	35	16	22	18	18	5	8	6
그 외 기타 금융업	244	64	62	19	8	16	12	6	2	2	2
생명 보험업	146	18	5	2	1	0	2	5	2	10	7
손해 및 보증 보험업	307	25	31	14	6	4	4	3	4	5	12
사회보장 보험업	2	1	1	0	0	0	0	0	0	1	1
재 보험업	20	4	2	3	1	0	0	0	1	0	1
연금 및 공제업	18	4	30	11	2	5	3	1	1	1	1
금융시장 관리업	3	1	0	0	0	1	0	0	1	1	1
증권 및 선물 중개업	26	4	2	2	11	7	6	5	1	10	10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128	229	143	24	16	10	12	10	2	2	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2,603	261	139	33	12	16	16	9	10	6	5
합계	6,623	1,561	1,883	535	255	250	211	153	39	57	67

자료: 고용보험통계(2016.12월 기준)

□ **(지역별 사업장 현황)**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전체 사업장수는 11,6343개로 서울(41.3%)과 경기(12.2%)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였음

[표23] 금융·보험산업 지역별 사업장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앙은행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은행	85	7	13	16	2	1	25	0	28	17	35	13	55	9	95	7	4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341	193	165	100	105	93	37	15	344	165	163	223	207	293	285	301	30
투자기관	257	8	3	1	2	1	0	0	21	0	0	2	0	1	1	1	0
여신금융업	370	60	28	44	31	36	10	1	141	8	19	30	21	6	11	22	82
그 외 기타 금융업	216	35	21	22	3	3	5	0	56	5	9	11	10	6	17	16	2
생명 보험업	73	11	3	7	11	5	7	0	31	6	3	3	12	6	7	9	4
손해 및 보증 보험업	139	24	26	11	16	15	9	1	54	19	17	13	12	10	27	16	6
사회보장 보험업	3	0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재 보험업	15	3	1	0	0	1	1	0	4	1	0	0	3	2	1	0	0
연금 및 공제업	35	2	5	2	4	4	1	0	4	3	5	1	4	2	1	1	3
금융시장 관리업	6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2	4	3	1	1	0	0	0	2	0	0	0	0	0	1	0	0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1,706	104	60	109	49	53	15	4	332	16	22	25	20	15	17	23	6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1,491	265	194	128	97	93	35	2	401	55	48	37	65	21	59	94	25
합계	4,810	717	522	442	321	306	147	23	1,418	295	321	358	409	371	522	490	162

자료: 고용보험통계(2016.12월 기준)

마) 자격 현황

(1) 금융 분야

□ **(자격 종류)** 금융 분야 자격으로는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신용분석사 등이 있음

[표24] 금융 관련 자격

구분	자격명	자격설명
1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증권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 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파생상품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에서 조사분석자료(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해당 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신용분석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황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신용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
8	외환전문역 Ⅰ종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 및 외환거래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외화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9	외환전문역 Ⅱ종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10	자산관리사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

(표 계속)

구분	자격명	자격설명
11	신용위험분석사	금융회사 및 기업신용평가기관 등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신용위험을 측정·관리하는 여신전문가
12	여신심사역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시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신용상황 및 사업성분석을 통해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출이율 및 기간의 결정, 대손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과 법률적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2017). 교육과정 안내.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2017). 시험종류 안내.
한국금융연수원. (2017). 자격시험안내.

□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최근 6년간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금융투자분석사 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 및 자산관리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5] 금융부문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	132,667	130,894	132,186	129,596	127,181	124,806
증권투자권유전문인력*	96,517	97,910	99,583	96,725	95,203	91,445
파생상품투자권유전문인력	71,474	48,691	49,803	52,955	60,338	65,483
금융투자분석사	1,452	1,470	1,335	1,192	1,090	1,125
투자자산운용사	11,697	11,707	11,840	11,594	12,414	13,476
재무위험관리사	238	229	227	240	250	251
신용분석사	1,507	1,764	2,003	2,448	3,003	3,817
외환전문역 Ⅰ종	791	2,010	4,216	7,443	11,019	14,322
외환전문역 Ⅱ종	487	1,236	2,011	3,322	5,018	6,743
자산관리사	3,769	4,291	4,865	5,265	5,678	6,119
여신심사역	248	279	348	414	459	516
신용위험분석사	123	148	178	202	236	251
합계	320,970	300,629	308,595	311,396	321,889	328,354

주: 여기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 투자권유자문인력 수만 집계하였음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수원

(2) 보험 분야

□ **(자격 종류)** 보험분야 관련 자격으로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이 있음

[표26] 보험 관련 자격

자격명	자격설명
보험계리사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써,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사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

자료: 보험연수원. (2017). 시험제도 안내.

□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최근 5년간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격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계리사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감소세를 보임. 손해사정사는 2013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전년도의 감소세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27] 보험부문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계리사	581	715	867	951	907	888
손해사정사	1950	2111	2014	1993	2115	2017
합계	2,531	2,826	2,881	2,944	3,022	2,905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현황

4) 직업 현황 및 전망

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 **(하는 일)** 투자 및 신용분석가는 투자분석이나 신용분석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기업가치평가, 개인신용분석, 기업신용분석,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함

○ **(투자분석가)**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는 회사나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예측, 산업분석, 기업분석, 개별 종목분석과 같은 각종 분석 정보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일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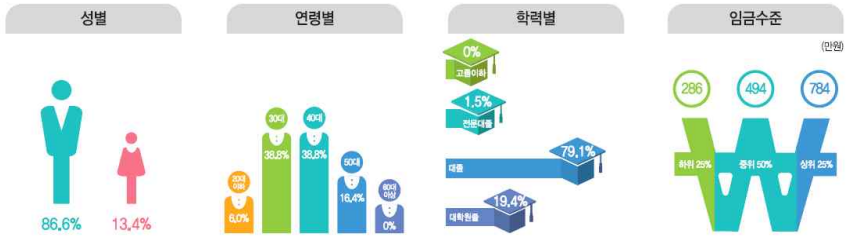
○ **(신용분석가)** 신용분석가는 주요 신용을 연장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현금흐름, 활동성, 산업 위험도, 경영 위험도, 영업 위험도, 기술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단계별로 등급화 하는 일을 수행함

□ **(특성)** 투자 및 신용분석가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투자 및 신용분석가 종사자 중 남성이 86.6%, 여성이 13.4%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연령은 40대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38.8%), 50대 이상(16.4%), 20대 이하(6.0%)가 그 뒤를 차지함

○ **(학력, 임금수준)** 학력은 대졸이 7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뒤이어 대학원졸(24.6%), 전문대졸(1.5%), 고졸이하(0%)로 나타났으며, 평균임금은 484만원임

[그림2] 투자 및 신용분석가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나) 자산운용가

□ **(하는 일)** 자산운용가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굴리는 전문 투자자로 펀드매니저라 불림

○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 상 위험을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모인 뭉칫돈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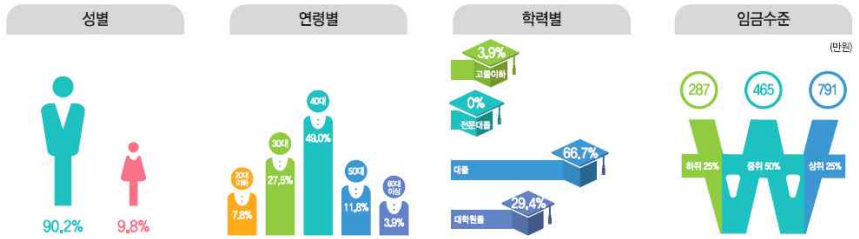
○ 자산운용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일임. 자금사정의 변화와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투자계획을 세움

□ **(특성)** 자산운용가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자산운용가의 비율은 남성이 90.2%, 여성이 9.8%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49.0%로 가장 많으며, 30대(27.5%), 50대(11.8%), 20대 이하(7.8%), 60대 이상(3.9%)의 순으로 확인됨

○ **(학력, 임금수준)** 학력은 대졸이 66.7%로 가장 많음. 이어 대학원졸(29.4%), 고졸 이하(3.9%), 전문대졸(0%)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임금은 465만원으로 나타남

[그림3] 자산운용가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다)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 **(하는 일)**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는 상품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며, 금리변동이나 영업비용 등 제반 운영비용과 회사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수행함

○ **(보험상품개발자/ 보험계리인)**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직업으로, 보험 및 연금 분야에서 확률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금융상품개발자)** 각종 예금, 주식 및 채권 등 금융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함

□ **(특성)**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의 비율은 남성이 83.3%, 여성이 16.7%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45.8%로 가장 많으며, 30대(41.7%), 50대 이상(4.2%), 20대 이하(8.3%)가 그 뒤를 차지함

○ **(학력)** 학력은 대졸이 87.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12.5%)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학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라) 증권 및 외환딜러

□ **(하는 일)** 증권딜러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을 사거나 팔려는 법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거래주문을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을 수행함. 외환딜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각국의 화폐와 파생상품을 가장 싼 시점에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아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남기는 금융전문가임

○ **(증권딜러/ 증권중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채권 등 현물유가증권에 대한 영업과 상담활동을 수행함. 또한 주식·통화·금리, 상품시장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중개하거나 국내에 나와 있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함

○ **(외환딜러)**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 파악과 분석에 주력하면서 미래 시장예측 등을 통하여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함. 금융기관 외환딜러들은 외화자금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업무도 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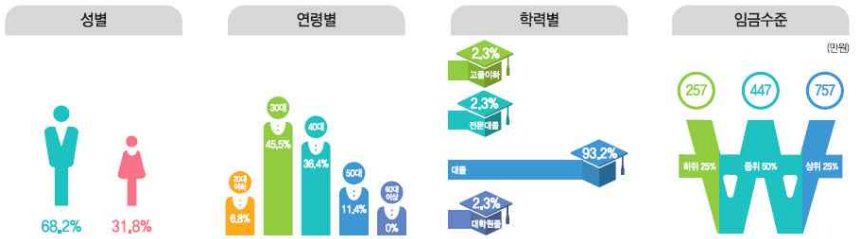
□ **(특성)** 증권 및 외환딜러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증권 및 외환딜러의 비율은 남성이 68.2%, 여성이

31.8%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30대가 45.5%로 가장 많으며, 40대(36.4%), 50대(11.4%), 20대 이하(6.8%)가 그 뒤를 차지함

○ **(학력, 임금수준)** 학력은 대졸이 93.2%로 가장 많았음. 대학원졸이 2.3%로 그 뒤를 따랐으며, 전문대졸자와 고졸 이하 학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임금은 447만원으로 나타남

[그림5] 증권 및 외환딜러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마) 손해사정사

□ **(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

○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사정함. 업무 수행이 종료되면 그 결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함

○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됨.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됨

□ **(특성)** 손해사정사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손해사정사의 비율은 남성이 96.0%, 여성이 4.0%로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52.0%로 가장 많으며, 30대(24.0%), 50대(20.0%), 20대 이하(4.0%)의 순으로 확인됨

○ **(학력)** 학력은 대졸이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학원졸(4.0%)과 전문대졸(4.0%) 순으로 확인됨

[그림6] 손해사정사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바)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하는 일)**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등에서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함

○ **(금융사무원)** 금융기관에서 기업이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수행함. 금융정책 수립, 여수신 업무 관련 각종 규정과 금융약관의 제정 및 해석, 금융상품 개발,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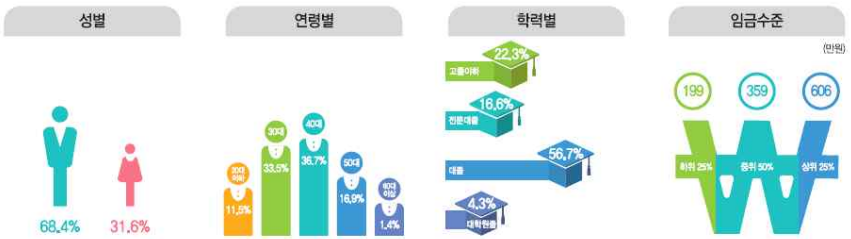
○ **(보험사무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선박, 항공 및 기타 각종 보험 거래에 수반되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형 병원 등에서 보험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특성)** 금융 및 보험관련사무원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출납창구사무원 성별, 연령)** 출납창구사무원 남성이 68.4%, 여성이 31.6%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30대(33.5%), 50대(16.9%), 20대 이하(11.5%), 60대 이상(1.4%)의 순으로 확인됨

○ **(출납창구사무원 학력, 임금)** 학력은 대졸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22.3%), 전문대졸(16.6%), 대학원졸(4.3%)의 순으로 확인되어 타 직업에 비해 고졸이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임금은 359만원임

[그림7] 출납창구 사무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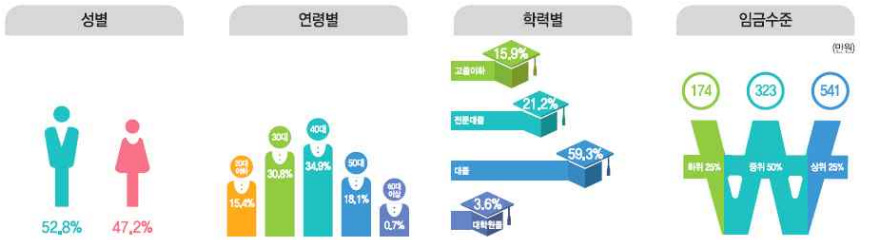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성별, 연령)**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종사자는 남성이 52.8%, 여성이 47.2%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34.9%로 가장 많으며, 30대(30.8%), 50대(18.1%), 20대 이하(15.4%), 60대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 **(보험심사원 학력, 임금)** 학력은 대졸이 59.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21.2%), 고졸이하(15.9%), 대학원졸(3.6%) 순으로 확인되었음. 평균임금은 323만원임

[그림8]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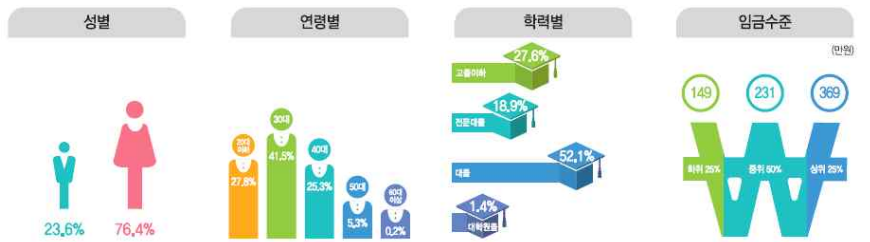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 **(금융 관련 사무원 성별, 연령)** 금융 관련 사무원 종사자는 남성이 23.6%, 여성이 76.4%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30대가 41.5%로 가장 많으며, 20대 이하(45.1%), 40대(25.3%), 50대(5.3%), 60대 이상(0.2%) 순으로 나타남

○ **(금융 관련 사무원 학력, 임금)** 학력은 대졸이 52.1%로 가장 많았음. 뒤이어 고졸 이하(27.6%), 전문대졸(18.9%), 대학원졸(1.4%)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임금은 23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9] 금융 관련 사무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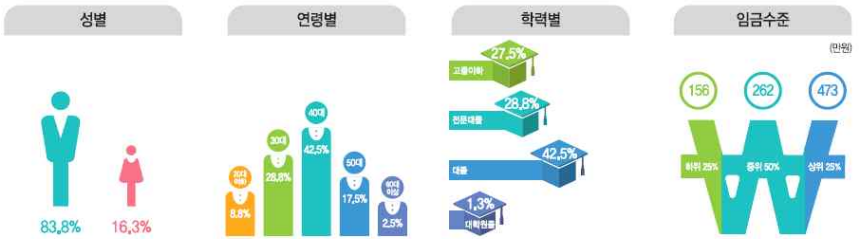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 **(신용추심원 성별, 연령)** 종사자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3%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42.5%로 가장 많으며, 30대(28.8%), 50대(17.5%), 20대 이하(8.8%), 60대 이상(2.5%) 순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신용추심원 학력, 임금)** 학력은 대졸이 42.5%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28.8%), 고졸 이하(27.5%), 대학원졸(1.3%) 순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인 자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평균임금은 262만원임

[그림10] 신용추심원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사) 보험 관련 영업원

□ **(하는 일)** 보험 관련 영업원은 생명, 재해, 자동차, 화재, 해상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에 관해 보상 종류와 지불조건, 계약관련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수행함. 보험관련 영업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으로 구분 가능함

○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과 관련하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계해 주는 사람으로 대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함

○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회사나 개인에게 자동차, 화재, 생명, 재산 등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수행함

□ **(특성)** 보험 관련 영업원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 **(성별, 연령)** 해당 분야 종사자는 남성 30.1%, 여성 69.9%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은 40대가 34.9%로 가장 많았고, 50대(34.5%), 30대(18.5%),

60대 이상(10.0%), 20대 이하(2.1%)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보다 고연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학력, 임금)** 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자가 61.1%로 가장 많아 다른 직종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뒤이어 대졸(22.5%), 전문대졸(14.9%), 대학원졸(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임금은 197만원임

[그림11] 보험 관련 영업원 특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2. 금융·보험산업 이슈

1) 디지털 금융화 가속

□ **(개요)** 금융·보험산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전문직종이 생겨나겠지만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와 활용에 의한 비용절감이 가속화되면 점포와 직원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52.0%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며, 금융 및 보험업의 고위험 직업군은 78.9%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

□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 금융·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업계 대응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 **(공급에 미치는 영향)** 기술진보로 인한 빅데이터 분석, 로봇과 같은 자동화는 비용 감소 및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수요에 미치는 영향)** 금융 소비자의 행태는 개인화, 합리화가 강화되면서 고도화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산재된 정보를 활용해 최적화된 맞춤형 소비 추구 성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한편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는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

-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 진입·설립·운용규제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이 나타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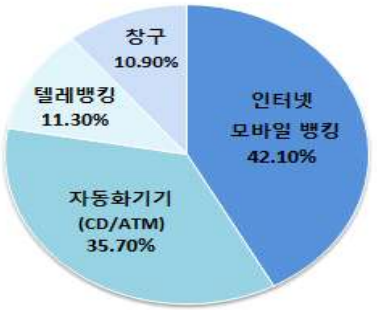
○ **(업계 대응)** 4차 산업혁명 도래, 저금리 및 고령화 등의 금융환경변화, 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향후 국내 자산관리 자문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문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현재 고액자산가 중심의 자산관리 자문 시장을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함

□ **(고용 감소)**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발전결과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른 영업점 대폭 축소로 창구사무원,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영업점 기반 관련 인력의 고용 감소 추이 지속

○ **(은행)** 2016년도 전체 은행거래중 비대면거래가 90% 차지(자료: 한국은행)

[그림12] 은행 채널별 입출금·자금이체 업무 거래 비중(2016년 12월 기준)



○ **(보험)** 2016년도 모바일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보험 판매액이 2조 2,199억원으로 2013년도 6,582억 원에 비해 337% 증가 (자료: 생명·손해보험 협회)

○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식 거래 비중이 2016년 말 기준 코스피 39.3%, 코스닥 39.5%수준으로 대폭 성장(2009년 비중 코스피 2.4%, 코스닥 2.8%)으로 오프라인 비중은 10%에 불과(자료: 한국거래소)

2)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출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3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임

□ **(성과)** 4월 26일까지 고객 총 24만 명이 유입됐으며, 주요 고객 연령대는 직장 생활로 상대적으로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30~40대로 나타남. 시중은행은 30대~40대 고객 비중이 45.3%인데 반해 케이뱅크의 30~40대 비중은 69.9%에 달함

○ 지난해 1년 동안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15.5만 건)를 출범 8일 만에 넘어서는 폭발적인 고객유입을 기록함

○ 올해 안에 5천억원의 수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4일 만에 2천848억원(26만 건)으로 50% 초과 달성함. 여신규모는 26일 현재 약 1천865억원(2만6천 건)으로 예대율은 약 65.5%임

□ **(대응)**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증권사·P2P 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는 분위기임

○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은행권은 가격 경쟁, 조직·채널 정비, 핀테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 움직임

○ 저축은행·P2P업계는 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점유, 증권사는 비대면거래 활성화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임

□ **(평가)** 출범 초 케이뱅크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가격 경쟁력'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까다로운 조건 없이 제휴사 코드만 입력하면 연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코드K)은 4회차 모두 하루 내 완판됨

○ 가입고객은 일상이 바쁜 30~40대가 대부분(70%)이며, 3명 중 1명꼴로 은행 영업시간 外 여·수신 등 서비스를 이용함

○ 케이뱅크는 당초 예상을 넘어 출범 초기부터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대형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를 중심으로 고객 이탈방지 등을 위한 가격 경쟁, 비대면·모바일 채널 강화 등이 본격화됨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금리 경쟁, 편의성을 넘어 핀테크와 연계한 '혁신적 서비스*'도 선도해 나가는 모습임

* (예) 인공지능 자산관리, 음성인식 뱅킹,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고객센터 등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여타 업권(보험·여전사 등)까지 경쟁 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방카슈랑스, 직불간편결제, 신용카드, 해외송금 등으로 확대

- **(신용카드)** 주주사의 다양한 IT 플랫폼·핀테크와 결합된 직불 간편결제* 출시로 신용카드 업계의 수수료 경쟁이 가속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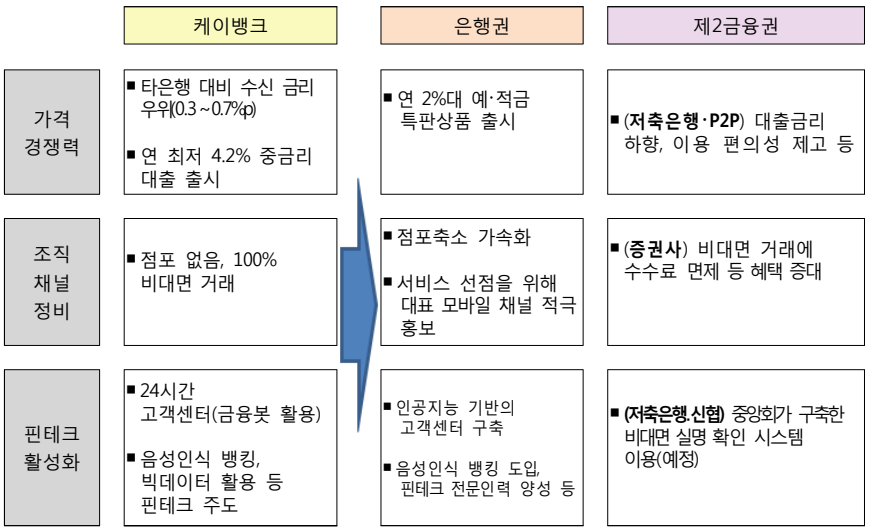
* VAN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가 가능해 약 0.5% 내외의 수수료 절감(추정)

- **(보험)** 비대면·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판매 비용 절감,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등의 전략이 본격화됨

- **(외환송금)** 시중은행 대비 대폭 저렴한 송금비용 등을 토대로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송금업체 등과의 경쟁도 활성화됨

* 카카오뱅크는 수수료가 시중은행 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외환송금 서비스 준비 중

[표28] 케이뱅크 출범으로 인한 금융권 대응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3) IFA 도입

□ **(개요)**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인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자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생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민재산의 효율적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독립투자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를 도입함(2016.03.24.)

○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가 2017년 상반기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 **(영향)** 낮은 문턱과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개인 창업이 예상됨

○ 일반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요건 간소화

- IFA는 투자권유자문 인력 1명만 있어도 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행법령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주식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데 IFA는 최저 1억 원의 자본,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만 하면 제한적이지만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음

- 일반 운용 전문인력이나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추가 시험 없이 IFA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계점)** 제도시행 초기에 안착을 위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제한된 자문)** 자본금 1억으로는 펀드나 ELS 권유 혹은 자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종합적인 컨설팅이 어려움

○ **(자문수수료 저항)**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고객이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부담감을 느낌

○ **(낮은 수준의 수수료)** 소액 자산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4) 해외진출 강화

□ **(해외진출 현황)** '16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407개(44개국)로 전년말(396개) 대비 11개 점포가 증가함

* '16년 말 현재 해외점포 수(개) : 은행(178), 금융투자(112), 보험(81), 여전(33), 지주(3)

○ '16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아시아 지역에 68.8%(280개), 미주지역 17.2%(70개), 유럽지역 9.8%(40개) 順 진출 중

○ 특히,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등) 지역은 높은 성장가능성, 인프라확충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및 자동차할부 시장 개척 등의 사유로 은행·여전 중심으로 진출이 증가함

○ 최근 국내 금융회사는 현지법인 子지점* 증설을 통해 해외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지법인이 관리하는 지점으로 직접 설립 또는 현지 금융회사 인수 시 양도받은 지점

-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지점 또는 법인 신규설립을 통한 진입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현지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진출이 활발함

○ 한편, 최근에는 은행 및 여전사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액대출업 등 이종업종으로의 현지법인 진출이 두드러짐

□ **(해외점포 재무현황)**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 손익 및 지역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산)**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증가세에 따라 '16말 현재 해외점포 총자산은 1,113.1억 달러(134.5조원)로 최근 5년간 48.3% 증가

○ **(손익)**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전체의 '16년도 당기순이익은 6.6억 달러(7,945억원)로 전년 대비 1.6억 달러(1,983억원, +33.3%) 증가하였음

○ **(지역분포)** '16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자산 중 아시아 지역이 753.3억 달러로 해외점포 총자산중 67.7%이며, 당기순이익은 5.5억 달러로 전체 해외점포의 83.7%를 차지함

5) 금융투자회사 M&A

□ **(증권업계 지각변동)** 최근 수년간 업계 상위 증권사를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의 산업통합(industry consolidation) 유형의 M&A가 진행됨

○ 2015년 NH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인수와 NH투자증권 출범,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인수("미래에셋대우") 및 KB투자증권의 현대증권 인수("KB증권")

- 자기자본 규모에서 각각 업계 1위와 3위에 올라서게 됨

[표29] 최근 국내 증권사 M&A 사례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존속회사(출범일)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2015.9)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증권	메리츠종금증권(2015.6)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2017.1)
KB투자증권	현대증권	KB투자증권(2017.1)

□ **(진행 형)** 과거에 국내 증권사 M&A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수의 딜이 성사되고 있으며 현재도 3~4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M&A 시장에서 인수자를 물색 중임

3. 금융·보험산업 전망

1) 은행업

□ **(은행 전망)** 2017년 은행업 경영실적은 성장성 둔화 등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성장성이 소폭 둔화되고,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개선되기 어려우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성장성)** 2017년 국내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과 은행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될 전망

- 대출 증가율(전년대비, %) : 10.2('15) → 7.7('16E) → 5.6('17E)

○ **(수익성)** NIM* 상승으로 이자이익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이자이익 감소 가능성, 대손비용 발생 등으로 전년수준에 그칠 전망

- 대손비용 추이(조원) : 4.9('15년 상반기) → 6.9('15년 하반기) → 9.4('16년 상반기)

*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

○ **(자산건전성)** 취약업종 중심의 기업 부실위험 증대,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개선 가능성 낮을 전망 -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커버리지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 **(자본적정성)**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응한 자본확충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손준비금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양호한 수준 유지 전망

* 바젤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합의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

2) 보험업

□ **(생명보험)**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 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 보험 저성장으로 2016년에 비해 1.0%p 하락한 1.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 보험 비중 확대 전략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 보험이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판매 부담이 계속되어 역성장(-1.2%)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 신규 수요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5.8% 증가가 전망됨

□ **(손해보험)**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연금 부문과 장기저축성 보험 등의 부진으로 인해 2016년 대비 0.9%p 감소한 2.9% 성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이 계속해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높은 의료수요와 보험니즈 변화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2.9% 증가할 전망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 및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1.1% 감소할 전망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등의 보험료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와 가입금액 고액화, 2016년 요율인상 효과에 힘입어4.8%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증권업

□ **(수익성)** 2017년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수익변화가 중요함

○ **(위탁매매)** 2017년 위탁매매 수익은 다소 증가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상장기업의 수익개선 전망과 낮은 PER로 인한 투자심리 상승 요인은 긍정적 측면이나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평균 수수료율 하락 가능성은 부정적 측면에 해당함

○ **(자기매매)** 시장변동성, 금리인상, 파생상품 감독강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함

□ **(인수분야)** 2017년 IPO 시장은 호조로 예상되나 회사채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IPO)** 에너지공기업과 대기업 IPO의 수요 증가, 한국거래소의 적극적 상장유치, 적자기업 상장을 허용하는 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호조가 예상됨

○ **(회사채)** Fed 금리인상 가속화에 국내 채권가격 하락 추세가 예상되며 이에 발행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M&A)** 2017년 M&A 시장은 국내외 각종 불안 요인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M&A 수요는 높지만 국내외 다양한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M&A를 포함한 기업의 투자활동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상품판매·자산관리)**

○ **(ELS·DLS)** 2017년 1월부터 ELS·DLS 발행회사는 헤지 자산을 고유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판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LS·DLS 발행은 위축될 전망임

○ **(펀드판매)** 2017년에는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형 펀드 판매가 위축될 전망이며, 유가증권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주식형 펀드 판매는 증가할 전망임

○ **(신탁업)** 2017년에는 신탁서비스 다양화, 신탁자산 관리 효율화 등 신탁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신탁규모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랩어카운트)**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에 힘입어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며 소액 개인투자자가 주로 참여하는 자문형랩어카운트는 수익률 하락으로 위축세가 지속될 전망임

4) 여신전문금융업

□ **(전망)** 2017년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증가세 둔화, 건전성 저하 등으로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금리 상승 시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여전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 하락 예상

- 반대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더라도 여전사의 이자수익 감소가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5) 저축은행

□ **(전망)** 금융당국의 구조조정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으로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등 저축은행의 업황이 회복 추세임. 실적 개선에는 저금리,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업무범위 확대 등 양호한 경영환경이 크게 작용함

○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 급증, PF 및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증가, 대형화, 양극화 등 산업구조가 변화

○ 변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금리인상, 가계부채 이슈 대두, 부동산 경기 악화 가능성 등 금융시장 변화로 2017년은 저축은행 성장의 변곡점이 될 전망

○ 한편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정치권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로 저축은행은 성장보다는 건전성 유지에 치중한 보수적 경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 **(향후 방향)** 저축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성장보다는 과감한 체질 개선과 핀테크 활용, 제휴 등 경영혁신을 통해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

4. 소결

1) 금융·보험산업 현황

□ **(GDP 비중)** 2016년 금융·보험산업의 GDP는 80.5조로 금액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기준으로 전 산업대비 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자산 비중)** 2007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여신 등의 비중은 증가

* 2016년말기준 은행 61.69%, 보험 22.13%, 증권·선물 8.8%

□ **(영업실적)** 2016년 금융·보험산업의 대부분 업권에서 영업실적은 과거에 비해 악화된 상황임

○ **(은행)** 2016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조선·해운업종의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증권회사)** 2016년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3.9%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보험회사)** 2016년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5.0% 감소하였으나 손해보험회사는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음

□ **(사업체 현황)** 2016년도 기준 금융·보험산업 관련 회사 수는 자산운용사의 증가 등으로 2012년도 대비 12개 증가하여 약 0.4%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국내 영업점포는 은행(595개), 보험(894개), 증권(446개) 등 1,875개가 감소함. (2012년 대비 9.4% 감소)

2) 금융·보험산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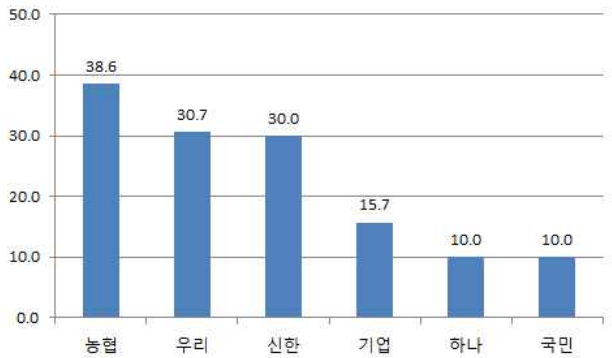
□ **(디지털 금융)** 금융·보험산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전문직종이 생겨나겠지만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와 활용에 의한 비용절감이 가속화되면 점포와 직원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도래, 저금리 및 고령화 등의 금융환경변화, 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향후 국내 자산관리 자문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문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발전에 따른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영업점 대폭 축소로 창구사무원,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영업점 기반 관련 인력의 고용 감소 추이 지속

- 반면, 치열한 핀테크 경쟁에 돌입한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공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13] 2016년도 시중은행 신규 채용 이공계 비중(%)



□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증권사·P2P 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는 분위기임

○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은행권은 가격 경쟁, 조직·채널 정비, 핀테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 움직임

○ 저축은행·P2P업계는 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점유, 증권사는 비대면거래 활성화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임

□ **(IFA)** 금융상품의 복잡· 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인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가 상반기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낮은 문턱과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개인 창업이 예상됨

□ **(해외진출 강화)** 국내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점포수 및 순익이 증가함

○ 특히 동남아 지역은 높은 성장가능성, 인프라확충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및 자동차할부시장 개척 등의 사유로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함

□ **(금융투자회사 M&A 등)** 과거에 국내증권사 M&A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수의 딜이 성사되고 있으며 현재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M&A 시장에서 인수자를 물색 중임

○ 국내 증권업계는 과거에 성장성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증권사 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 M&A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 간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점포 신설 및 증권회사의 대형점포 전략 역시 점포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3) 금융·보험산업 전망

□ **(은행업)** 2017년 은행업 경영실적은 성장성 둔화 등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

□ **(보험업)**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 보험 및 연금부문은 역성장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증권업)** 2017년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회사의 대형화는 가속화될 전망임. 한편 중소형사는 대형사와 차별화된 시장세분화 전략으로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여신전문금융업)** 2017년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증가세 둔화, 건전성 저하 등으로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됨

□ **(저축은행)** 금융당국의 구조조정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으로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등 저축은행의 업황이 회복 추세임

Ⅲ 금융 · 보험산업 인력 현황

1. 종사자 현황

□ **(산업 종사자 전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 간 금융·보험산업 취업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수는 2013년에 가장 많았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대비 9천명(1.1%) 가량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전 산업에서의 종사자 수는 2,802천명(12.0%) 정도 증가하였음

[표30]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추이(2007-2016)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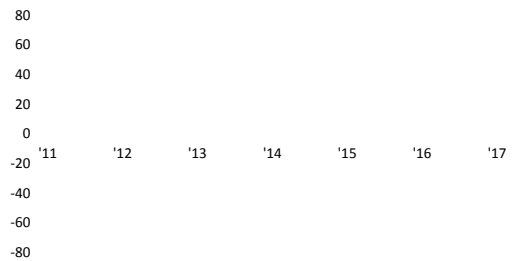
구분	2007 (A)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	증감 (B-A)
전 산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26,235	2,802 (12.0%)
금융·보험업	806	821	766	808	846	842	864	837	789	797	-9 (-1.1%)

자료: 통계청. (2007-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 2/4분기에서 2015년 4/4분기까지 상당한 수의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2016년 중반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증가폭이 2011년과 2013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4]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 **(규모별 현황)**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1,699명(52.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0-999인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수는 40,844명(8.8%)로 나타남

* 규모별 현황은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종사자 전체 수(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이가 존재함

○ 최근 8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50% 이상의 종사자가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금융·보험업종의 사업장이 큰 규모에 속함

- 반면, 매년 5인 미만에서부터 500-999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 수가 모두 10% 미만의 비율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 현황)**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1000인 이상 서울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310,099명(66.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23,867명(5.1%)으로 나타남

* 지역별 현황은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종사자 전체 수(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이가 존재함

○ 최근 8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70% 이상의 조사자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보험업종의 사업장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

- 그러나 2013년부터 서울 지역의 금융·보험 종사자 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2016년의 서울지역 종사자 수는 310,099명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25,415명(7.6%)이 감소하였음

-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종사자 비율은 전 지역에 걸쳐 5% 미만의 비율로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의 종사자 수 격차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31]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규모별)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5인 미만	9,165	2.1	9,850	2.3	10,458	2.3	11,187	2.4	9,818	2.1	8,764	1.9	9,467	2.0	9,751	2.1
5-9인	10,783	2.5	11,431	2.6	11,528	2.6	9,968	2.1	10,191	2.2	10,306	2.2	10,495	2.3	10,692	2.3
10-29인	32,023	7.4	32,397	7.4	33,150	7.3	31,160	6.7	30,787	6.6	30,692	6.6	31,472	6.8	32,426	7.0
30-49인	20,318	4.7	22,071	5.1	22,263	4.9	20,829	4.5	21,639	4.6	21,020	4.5	20,852	4.5	20,548	4.4
50-69인	15,405	3.6	14,039	3.2	14,771	3.3	14,680	3.1	14,382	3.1	13,684	3.0	14,280	3.1	15,216	3.3
70-99인	19,612	4.6	19,580	4.5	19,857	4.4	21,482	4.6	21,400	4.6	21,632	4.7	20,200	4.4	21,114	4.5
100-149인	20,704	4.8	21,059	4.8	21,494	4.8	25,158	5.4	24,677	5.3	23,572	5.1	24,589	5.3	25,581	5.5
150-299인	22,756	5.3	25,160	5.8	26,012	5.8	27,973	6.0	30,043	6.4	30,619	6.6	34,809	7.5	31,094	6.7
300-499인	12,809	3.0	12,565	2.9	16,978	3.8	18,712	4.0	17,454	3.7	18,757	4.0	15,516	3.4	15,502	3.3
500-999인	30,931	7.2	40,169	9.2	30,510	6.8	30,932	6.6	29,814	6.4	33,672	7.3	37,659	8.1	40,844	8.8
1000인 이상	235,717	54.8	227,521	52.2	244,190	54.1	254,058	54.5	257,481	55.1	250,778	54.1	242,852	52.5	241,699	52.0
합계	430,223	100.0	435,842	100.0	451,211	100.0	466,139	100.0	467,686	100.0	463,496	100.0	462,191	100.0	464,467	100.0

주: 각 연도의 12월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고용보험통계. (2009-2016). 산업별 규모별 성별 순수 피보험자 현황.

[표32]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지역별)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	비율
서울	306,525	71.2	309,207	70.9	322,557	71.5	333,723	71.6	335,514	71.7	323,774	69.9	309,999	67.1	310,099	66.8
부산	12,253	2.8	12,565	2.9	12,963	2.9	13,208	2.8	13,356	2.9	15,453	3.3	16,827	3.6	17,026	3.7
대구	8,066	1.9	8,202	1.9	8,382	1.9	8,620	1.8	8,313	1.8	8,288	1.8	11,106	2.4	11,611	2.5
인천	4,580	1.1	4,794	1.1	5,271	1.2	5,053	1.1	4,735	1.0	4,818	1.0	4,661	1.0	4,789	1.0
광주	4,423	1.0	4,638	1.1	4,675	1.0	4,957	1.1	4,935	1.1	5,057	1.1	5,167	1.1	5,312	1.1
대전	4,317	1.0	4,443	1.0	3,684	0.8	4,422	0.9	4,206	0.9	4,311	0.9	4,424	1.0	4,240	0.9
울산	2,266	0.5	2,477	0.6	2,664	0.6	2,786	0.6	2,836	0.6	7,137	1.5	7,252	1.6	7,036	1.5
세종	-	-	-	-	-	-	424	0.1	434	0.1	453	0.1	467	0.1	477	0.1
경기	21,460	5.0	22,035	5.1	22,355	5.0	22,919	4.9	22,637	4.8	22,764	4.9	23,218	5.0	23,867	5.1
강원	6,712	1.6	6,888	1.6	6,863	1.5	7,064	1.5	7,120	1.5	7,109	1.5	7,744	1.7	7,758	1.7
충북	5,246	1.2	5,498	1.3	5,586	1.2	5,770	1.2	5,860	1.3	5,771	1.2	5,767	1.2	5,713	1.2
충남	8,878	2.1	8,977	2.1	9,118	2.0	9,254	2.0	9,192	2.0	9,158	2.0	9,300	2.0	9,498	2.0
전북	8,244	1.9	8,429	1.9	8,497	1.9	8,598	1.8	9,041	1.9	8,903	1.9	14,449	3.1	14,984	3.2
전남	9,665	2.2	9,671	2.2	9,773	2.2	9,889	2.1	9,898	2.1	9,887	2.1	10,017	2.2	10,191	2.2
경북	10,262	2.4	10,390	2.4	10,643	2.4	10,872	2.3	10,683	2.3	10,743	2.3	10,857	2.3	10,920	2.4
경남	12,854	3.0	13,026	3.0	13,385	3.0	13,720	2.9	13,966	3.0	14,971	3.2	15,401	3.3	15,377	3.3
제주	4,472	1.0	4,602	1.1	4,795	1.1	4,860	1.0	4,960	1.1	4,899	1.1	5,535	1.2	5,569	1.2
합계	430,223	100.0	435,842	100.0	451,211	100.0	466,139	100.0	467,686	100.0	463,496	100.0	462,191	100.0	464,467	100.0

주: 각 연도의 12월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고용보험통계. (2009-2016). 산업별 규모별 성별 순수 피보험자 현황.

□ **(연령별 현황)** 2016년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0~40대의 비율이 68.8%로 나타나 금융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종사자 전체 수(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이가 존재함

○ 20세 미만 종사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손해 및 보증 보험업이며,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일반은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60대 이상은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에 가장 많이 종사함

[표33]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현황(연령별)

(단위: 명, %)

구분	18세 미만	18~20세 미만	20~24세 이하	25~29세 이하	30~34세 이하	35~39세 이하	40~44세 이하	45~49세 이하	50~54세 이하	55~59세 이하	60세 이상
중앙은행	0	14	87	301	295	303	302	346	450	377	0
일반은행	31	803	4,108	15,372	26,420	23,695	23,047	23,309	19,508	5,545	296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7	334	3,055	11,895	16,383	17,174	15,927	14,955	9,410	5,741	1,039
투자기관	2	18	476	1,789	2,592	2,125	1,991	1,653	868	264	59
여신금융업	4	83	1,200	4,872	6,881	6,578	5,676	4,187	2,094	1,065	307
그 외 기타 금융업	2	54	431	1,755	2,258	2,194	1,984	1,509	995	597	170
생명 보험업	3	101	1,014	3,246	5,593	5,716	5,385	4,867	1,874	278	57
손해 및 보증 보험업	17	403	2,019	5,246	7,663	8,660	7,151	6,676	3,781	1,219	286
사회보장 보험업	5	33	117	495	583	883	1,183	834	319	247	31
재 보험업	0	0	40	239	485	609	512	288	63	17	11
연금 및 공제업	5	46	210	932	1,285	1,531	1,711	1,421	1,259	849	76
금융시장 관리업	0	9	91	267	472	555	672	548	519	258	8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	126	705	3,208	7,361	6,096	5,378	5,011	2,255	711	234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5	108	693	2,361	3,071	2,891	2,423	2,110	1,223	641	33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26	392	1,715	5,139	6,177	5,028	4,006	3,133	1,864	1,061	739
합계	114	2,524	15,961	57,117	87,519	84,038	77,348	70,847	46,482	18,870	3,647

자료: 고용보험통계(2016.12)

□ **(업권별 현황)**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수를 업권별*로 구분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은행이 131,981명(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95,065명, 24%), 보험사(59,656명, 15%), 증권사(35,876명, 9%)가 그 뒤를 이음

* 업권별 현황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통계)와 차이가 존재함

[표34] 금융권역별 임직원 수 추이(2012-2016)

(단위: 명)

구분		2012(A)	2013	2014	2015	2016(B)	증감 (B-A)	증감률 (%)
은행	국내은행	137,593	135,258	135,281	133,620	131,981	-5,612	-4.3
	외은지점	2,577	2,561	2,517	2,565	2,511	-66	-2.6
보험	생명보험	29,717 (166,970)	30,380 (153,334)	28,111 (139,434)	27,309 (135,437)	27,155 (133,369)	-2,562 (-33,601)	-9.4 (-25.2)
	손해보험	32,438 (170,165)	33,479 (164,253)	33,047 (156,662)	32,373 (156,596)	32,501 (158,992)	63 (-11.173)	0.2 (-7.0)
금융투자	증권사	42,802	40,245	36,561	36,118	35,876	-6,926	19.3
	선물사	555	539	482	428	395	-160	-40.5
	자산운용사	4,625	4,682	4,852	5,259	6,142	1517	24.7
	투자자문사	1,376	1,335	1,407	1,550	1,172	-204	-14.8
	부동산신탁	1,177	1,185	1,257	1,367	1,539	362	30.8
	종합금융회사	98	79	76	99	136	38	38.8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사	14,821	15,033	15,184	13,901	12,757	-2,064	-13.9
	리스사	3,281	3,705	3,903	4,182	4,139	858	26.2
	할부금융사	7,092	6,468	7,538	7,737	7,175	83	1.2
	신기술금융사	483	513	567	585	680	197	40.8
저축은행		6,280	6,624	7,944	8,451	9,123	2,843	45.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17,884	17,688	17,564	17,389	17,247	-637	-3.6
	농업협동조합	92,300	93,134	93,856	94,416	95,065	2,765	3.0
	수산업협동조합	6,709	6,722	6,917	7,163	7,038	329	4.9
	산림조합	2,000	1,947	1,949	1,945	3,143	1,143	57.2
합계		403,808	401,577	399,013	396,457	395,775	-8,033	-2.0

주 1) 회사 수 산정을 위해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금융통계월보」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취합된 자료가 상이하여 값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주 2) 고용인원 산정 시 직원 외 인원 포함, 생보, 손보 고용인원의 괄호는 설계사 수를 의미, 상호금융의 고용인원 산정 시 조합원은 제외, 금융지주회사 고용인원 산정 시 자회사 포함, 합계 산정 시 보험설계사 수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2-2016). 금융통계월보.

○ **(종사자 수 변동)** 종사자 수는 2012년과 대비하여 증권(6,926명), 은행(5,612명), 보험(2,499명)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2,843명), 농업협동조합(2,765명), 자산운용사(1,517명), 리스사(858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33명이 감소함

○ **(보험설계사 감소)** 종사자 수 산정 시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사는 생명보험 33,601명(25.2%), 손해보험 11,173명(7%)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보험설계사의 경우 홈쇼핑, 온라인채널,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계속 등장하면서 설계사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그림15] 보험·연금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천 명)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 **(지위별 현황)** 종사상 지위별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47.2만 명, 임시근로자는 26.7만 명, 자영업자는 3.8만 명임

* 지위별 현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수치(고용보험통계)와 차이가 존재함

○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볼 때, 상용근로자는 2.1만 명, 일용근로자는 0.3만 명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는 1.3만 명, 임시근로자는 0.5만 명 증가하여, 상용근로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35] 종사상 지위별 금융·보험업권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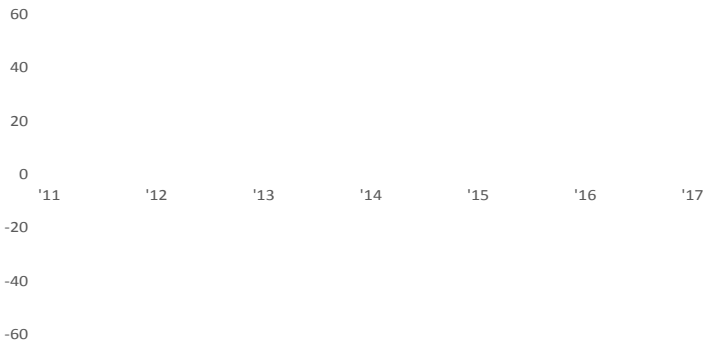
구분	2016년 1월	2월	6월	9월	12월	2017년 1월	2월	2월 취업자 수
상용근로자	12.2	8.9	-16.3	-7.6	-6.5	-12.1	-20.5	471.9
임시근로자	-12.4	-7.3	28.5	14.5	0.6	-3.2	5.7	266.5
일용근로자	0.3	-0.1	1.2	0.3	-1.1	-3.8	-3.3	0.0
자영업자	0.9	-1.5	-4.2	6.6	14.3	12.5	12.5	38.0
전체	1.0	-0.1	9.3	13.8	7.2	-6.5	-5.7	776.4

주: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 2011년부터 2017년 초반까지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확인한 결과로도 2014년 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16] 금융·보험업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 **(연령별 상용직 현황)**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9세 연령대에서 감소(△8,070명)하였으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1,735명)함

[표36] 연령별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

(단위: 명)

	2016년 2월(A)	2017년 2월(B)	증감(B-A)
15-19세	1,305	783	-522
20-29세	90,204	82,134	-8,070
30-39세	179,076	177,552	-1,524
40-49세	142,310	135,192	-7,118
50-59세	72,528	67,486	-5,042
60세 이상	7,029	8,764	1,735
전체	492,452	471,911	-20,541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p.4.

□ **(학력별 현황)**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 81.7만 명 중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56.1만 명으로, 취업자들의 전공계열 분포는 인문·사회계열(35.0만 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현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앞서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존재함

[표37] 전공 계열별 취업자 수(대분류)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	교육·사범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전 산업	25,951	13,598	12,353	4,538	1,241	829	1,214	3,776	754
금융·보험업	817	256	561	350	26	17	55	103	11
전 산업 대비 비율	3.1	1.9	4.5	7.7	2.1	2.0	4.5	2.7	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 (I).

2. 고용 현황

1) 구인 현황

□ **(구인 인원)** 2016년 금융·보험산업 구인 인원은 10,775명으로 나타남. 8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0년 14,336명을 정점으로 2013년부터 점차 낮아졌고, 2009년에 비해 845명(7.8%)이 증가함

[표38] 금융·보험산업 구인인원 추이(2009-2016)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인인원	9,930	14,336	12,870	10,599	12,860	12,366	11,179	10,775

주1: 각 조사년도의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 값을 활용함
주2: 산업분류가 2008년 9차로 변경되어 이후자료인 2009년부터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자료: 고용노동통계. (2009-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직종별 구인 인원)** 금융·보험산업 구인 인원을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이 6,087명(7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한편 현원 대비 구인인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직종에 상관없이 2.0~3.0%의 비율을 보여 직종별 격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39] 금융·보험산업 구인 현황(직종별)

(단위: 명, %)

구분	현원(A)	구인인원(B)	현원 대비 비율(B/A)
금융·보험 관련직	320,781	8,100	2.5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41,342	1,250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241,309	6,087	2.5
보험 관련 영업원	38,131	762	2.0

주: 2016년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 값을 활용함.
자료: 고용노동통계. (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채용 현황

□ **(직종별 채용현황)** 2016년도 금융·보험 관련직 채용 인원은 총

7,662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5,803명, 75.7%)이며, 보험 관련 영업원(666명, 8.7%)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 반면 현원대비 채용인원으로 보았을 때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의 채용인원이 전체의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 관련 영업원은 1.7%로 채용인원과 더불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표40] 금융·보험산업 채용 현황(직종별)

(단위: 명, %)

구분	현원(A)	채용인원(B)	현원 대비 비율(B/A)
금융·보험 관련직	320,781	7,662	2.4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41,342	1,194	2.9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241,309	5,803	2.4
보험 관련 영업원	38,131	666	1.7

주: 2016년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 값을 활용함.
자료: 고용노동통계. (2009-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업권별 채용현황)** 한국금융연구원(2017)에서 조사된 금융·보험산업의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 말까지의 입직자 수는 총 23,027명으로 신규 14,392명, 경력 8,635명으로 나타남

○ 은행, 보험, 여신전문의 경우 신규 채용의 비중이 더 높고,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경력 채용의 비중이 더 높음. 반면, 상호저축의 경우 신규와 경력 채용의 비중이 비슷하였음

[표41] 업권별 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신규	14,392 (62.5)	5,441 (94.0)	2,787 (62.8)	891 (26.8)	432 (25.8)	1,007 (51.4)	3,143 (63.2)	691 (80.2)
경력	8,635 (37.5)	348 (6.0)	1,649 (37.2)	2,439 (73.2)	1,242 (74.2)	954 (48.6)	1,832 (36.8)	171 (19.8)
계	23,027 (100.0)	5,789 (100.0)	4,436 (100.0)	3,330 (100.0)	1,674 (100.0)	1,961 (100.0)	4,975 (100.0)	862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고용형태별로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규직(44.2%)보다 비정규직(55.8%)의 채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채용은 정규직이 43.3%, 경력 채용은 정규직이 45.7%로 나타나 신규 채용에 비해 경력 채용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42]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정규직	44.2	43.3	45.7
비정규직	55.8	56.7	54.3
계	100	100	1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연령별 채용현황)** 채용현황을 연령별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20대 인력이 4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채용은 30대 미만 인력이 71.6%였으며, 경력 채용은 30대 이상이 82.0%를 차지하였음

[표43] 연령별 채용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0대 미만	4.2	6.7	0.1
20대	47.0	64.8	17.9
30대	27.3	15.0	47.5
40대	12.5	6.5	22.2
50대 이상	9.0	7.0	12.3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근무기간별 채용현황)** 근무기간별로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규와 경력 모두 근무기간 5년 이하의 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44] 근무기간별 채용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5년 이하	99.2	99.9	98.1
6~10년	0.4	0.1	1.0
10년 초과	0.4	-	0.9
11~15년	0.1	-	0.2
16~20년	0.1	-	0.2
20년 초과	0.2	-	0.5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학력별 채용현황)** 신규와 경력직 모두 대졸 인력이 6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신규 채용은 대졸(57.3%), 고졸(27.2%) 전문대졸(12.4%) 순으로 높았으며, 경력 채용은 대졸(68.4%), 대학원졸(13.3%), 고졸(9.5%)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5] 학력별 채용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고졸	19.8	27.2	9.5
전문대졸	10.9	12.4	8.8
대졸	61.9	57.3	68.4
대학원졸	7.3	3.1	13.3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규모)** 2016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286명(5.2%)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46] 2016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95 (16.2)	-48 (△32.0)	46 (21.6)	30 (53.6)	8 (20.5)	21 (61.8)	25 (32.1)	13 (86.7)
영업·마케팅	125 (3.4)	-279 (△19.3)	25 (4.1)	47 (30.3)	14 (56.0)	140 (17.3)	169 (39.3)	9 (4.1)
영업지원	-45 (△12.8)	-7 (△17.5)	4 (25.0)	-25 (△64.1)	-2 (△16.7)	-9 (-16.4)	-9 (-5.6)	3 (10.3)
자산운용	40 (17.6)	-3 (△42.9)	8 (28.6)	4 (7.7)	32 (23.7)	0 (-)	-1 (-25.0)	0 (0.0)
자산관리	15 (33.3)	-1 (△25.0)	2 (200.0)	-3 (△27.3)	14 (51.9)	0 (-)	0 (-)	3 (150.0)
보험	12 (5.9)	0 (-)	14 (7.1)	0 (-)	0 (-)	0 (-)	0 (-)	-2 (△22.2)
투자은행	46 (38.0)	0 (0.0)	0 (0.0)	49 (92.5)	0 (-)	1 (100.0)	-4 (△30.8)	0 (0.0)
기타	-2 (△0.9)	0 (-)	2 (1.6)	-19 (△36.5)	2 (100.0)	3 (100.0)	8 (38.1)	2 (10.5)
계	286 (5.2)	-338 (△19.9)	101 (8.5)	83 (19.9)	68 (28.3)	156 (17.3)	188 (26.6)	28 (9.4)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1) 차이 = '실제 채용 규모' - '채용 계획 규모'

2) ( )는 채용 계획 대비 실제 채용 규모 증감률(%)임

3)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규모 항목에 모두 응답한 회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에서 채용 계획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28.3%)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신전문(26.6%), 증권/선물(19.9%), 상호저축(17.3%)의 증가율이 높았음

○ 직무별로는 투자은행(38.0%), 자산관리(33.3%) 직무에서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3) 미충원 및 부족 현황

□ **(미충원현황 및 주된 사유)**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금융업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미충원 일자리 수는 400여개이며, 미충원율은 3.9%로 나타남

○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p 낮고, 전 산업 평균(12.7%)과 비교하여 볼 때 8.9%p 낮은 수준임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5%) 등으로 조사됨

□ **(직능수준별 미충원 현황)**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금융·보험산업 미충원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전체 531명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623명, 2015년 784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임

[표47] 금융·보험산업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단위: 명)

구분	2014(A)	2015	2016(B)	증감(B-A)
직능수준 1	148	195	9	-139
직능수준 2-1	97	102	200	103
직능수준 2-2	248	256	210	-38
직능수준 3	120	230	113	-7
직능수준 4	11	1	-	-11
전체	623	784	531	-92

주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반기를 주기로 행해지는 조사로, 본 자료에서는 2016년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함.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한 값을 활용함

주2: 직능수준1) 무경험자, 학력무관, 자격증 무관
직능수준2-1) 1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수준 또는 고졸 이하
직능수준2-2) 1-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이하
직능수준3) 2-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 수준
직능수준4)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 수준

자료: 고용노동통계. (2014-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특히 2014년과 비교하여 볼 때,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은 1수준(학력무관)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2-1수준(고졸 이하)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부족현황)** 금융·보험산업의 부족인원*과 인력부족률**을 살펴본 결과 2016년의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2009년에 비해 1,797명(33.0%)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력부족률 역시 2012년에 비해 0.6%p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임

* 부족인원은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의미함

**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표48]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족인원	5,461	4,209	4,565	4,475	5,120	5,418	5,625	3,664
인력부족률	1.4	1.1	1.1	1.0	1.1	1.2	1.3	0.8
채용계획 인원	5,135	6,329	5,994	5,086	5,237	5,246	5,326	3,636

자료: 고용통계포털. (2017).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3. 이직 및 퇴직 현황

□ **(이직 현황)** 금융·보험산업의 이직자 수는 2016년 기준 10,826명으로 전 산업에 비해 1.6%에 해당되며, 작년에 비해 888명 증가한 수치임. 반면 2016년 이직자 수는 2010년에 비해서는 274명 감소하였지만, 전 산업 대비 비율은 0.2% 증가함

○ **(이직률)** 금융·보험산업의 이직률은 2016년 기준 2.4%로 작년 2.2%의 비율 대비 0.2% 상승함. 또한 전 산업 이직률이 4~5%인데 반해 금융·보험의 이직률은 2~3%로 전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직률을 보임

[표49] 금융·보험산업 이직자 추이(2010-2016)

(단위: 명, %)

구분		2010년 (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증감 (B-A)
이직자	전 산업	777,687	692,412	675,011	730,810	734,657	762,015	694,573	△83,114
	금융·보험업	11,100	22,778	16,399	13,559	14,115	9,938	10,826	△274
	비율	1.4	3.3	2.4	1.9	1.9	1.3	1.6	0.2
이직률	전 산업	5.9	5.1	4.8	5.0	4.8	4.9	4.4	△1.5
	금융·보험업	2.5	5.0	3.7	3.0	3.1	2.2	2.4	△0.1

주 1) 각 연도의 12월 통계 자료를 활용함
2) 이직률=(당월 이직자 수/전 월말 근로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통계포털. (2010-2016)

□ **(산업 간 이동 현황)** 2016년 금융·보험산업 내 이동은 3,704명이며, 타 산업에서 금융·보험산업으로 유입된 인원은 2,734명, 금융·보험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유출된 인원은 3,613명으로 순유출 규모는 879명에 달함

[표50] 산업간 경력취득자 노동력 이동현황

(단위: 명)

타 산업 → 금융·보험 산업으로 유입		금융·보험 산업 → 타 산업으로 유출	
농림업	7	농림업	10
광업	0	광업	1
제조업	331	제조업	462
전기·가스·수도사업	19	전기·가스·수도사업	7
하수 폐기물 처리	4	하수 폐기물 처리	17
건설업	80	건설업	127
도소매업	356	도소매업	593
운수업	55	운수업	91
숙박·음식점	184	숙박·음식점	184
출판·영상방송	249	출판·영상방송	243
금융·보험업	3,704	금융·보험업	3,704
부동산 및 임대업	65	부동산 및 임대업	170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249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287
사업 시설관리 서비스업	713	사업 시설관리 서비스업	819
공공·행정국방	85	공공·행정국방	99
교육·서비스업	92	교육·서비스업	96
보건업·사회복지	141	보건업·사회복지	269
예술·스포츠	43	예술·스포츠	42
협회·단체수리	61	협회·단체수리	94
가구 내 고용활동	0	가구 내 고용활동	1
국제 외국기관	0	국제 외국기관	1
합계	6,438	합계	7,317

자료: 고용보험통계. (2016). 재취득자 노동력이동 현황_산업간 경력취득자 노동력 이동현황(2016년 12월 기준)

○ 타 산업에서 금융·보험산업으로 유입된 노동력은 사업 시설관리 서비스(713명), 도소매업(356명), 제조업(331명) 순으로 많으며, 금융·보험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유출된 노동력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설관리 서비스(819명), 도소매업(593명), 제조업(462명) 순으로 많음

□ **(이·퇴직 사유)** 금융·보험산업에서 피보험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51.4%(40,366명)로 가장 많았음

[표51] 금융·보험산업 상실사유별 상실자 현황[1)]

(단위: 명, %)

구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중앙은행	151	0	0	0	0	11	260	0
일반은행	5,141	113	16	3,570	109	301	5,490	18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896	677	105	1,618	258	766	2,179	61
투자기관	1,945	21	8	550	23	5	992	19
여신금융업	4,228	124	74	1,782	36	84	1,843	24
그 외 기타 금융업	1,602	136	33	2,122	22	59	550	15
생명 보험업	1,499	36	10	757	7	16	775	30
손해 및 보증 보험업	3,771	30	11	1,104	25	63	2,298	16
사회보장 보험업	187	0	0	2	1	32	810	0
재 보험업	398	0	2	96	1	1	78	0
연금 및 공제업	342	1	0	70	4	38	927	25
금융시장 관리업	113	4	0	13	0	10	89	0
증권 및 선물 중개업	2,691	8	56	889	25	18	1,493	1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4,214	129	179	960	52	29	581	78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88	108	229	1,022	93	10	753	44
합계	40,366	1,387	723	14,555	656	1,443	19,118	341

주: 1) 신분류 활용, 분류 불능 제외
2)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자료: 고용보험통계. (2016.12)

□ **(업권별 이·퇴직현황)** 한국금융연구원(2016)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보험산업 이·퇴직자 수는 총 24,286명인 것으로 조사됨

○ **(이·퇴직 사유)** 해당 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65.8%)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30.8%)이며, 업권별로는 은행, 여신전문, 보험 순으로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52]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5,980 (65.8)	3,788 (52.4)	4,351 (87.7)	2,371 (72.5)	989 (86.5)	1,112 (67.4)	2,904 (53.3)	465 (80.0)
비자발적 이직	7,477 (30.8)	3,270 (45.2)	573 (11.6)	820 (25.1)	137 (12.0)	527 (31.9)	2,086 (38.3)	64 (11.0)
정년퇴직	219 (0.9)	116 (1.6)	23 (0.5)	19 (0.6)	9 (0.8)	11 (0.7)	9 (0.2)	32 (5.5)
기타	610 (2.5)	58 (0.8)	13 (0.3)	62 (1.9)	9 (0.8)	- -	448 (8.2)	20 (3.4)
계	24,286 (100)	7,232 (29.8)	4,960 (20.4)	3,272 (13.4)	1,144 (4.7)	1,650 (6.8)	5,447 (22.5)	581 (2.4)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정규직 이·퇴직 현황)** 정규직 이·퇴직자는 전체 인원 중 56.7%를 차지하였으며, 자발적 이직의 비율이 7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53]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76.0	62.3	95.2	80.7	92.4	67.3	72.7	80.3
비자발적 이직	19.5	34.0	3.9	14.2	5.8	31.5	11.3	9.3
정년퇴직	1.7	2.7	0.6	1.0	0.8	1.2	0.6	6.2
기타	2.8	1.0	0.3	4.0	1.0	-	15.4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업권별로는 보험(95.2%), 자산운용/신탁(92.4%), 증권/선물(80.7%)의 순으로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 이·퇴직 현황)**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전체 인원 중 43.3%를 차지하였으며, 자발적 이직이 49.1%, 비자발적 이직이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 비율은 정규직의 19.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특히 은행(64.9%), 보험(47.9%)의 비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협(78.6%)으로 조사됨

[표54]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49.1	34.6	52.1	64.8	61.2	68.0	45.5	78.6
비자발적 이직	47.7	64.9	47.9	34.8	38.8	31.7	47.3	18.8
정년퇴직	0.1	0.2	-	0.2	-	0.3	-	2.7
기타	3.0	0.3	-	0.1	-	-	7.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연령별 이·퇴직 현황)**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발적 이직이 60% 이상의 비중을 보임

- 자발적 이직 비율은 30대가 76.1%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이직 비율은 50대 이상이 48.5%로 높게 나타남

[표55]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발적 이직	72.0	61.8	76.1	65.7	46.0
비자발적 이직	26.4	33.9	20.6	31.3	48.5
정년퇴직	-	-	-	0.1	4.0
기타	1.6	4.4	3.2	3.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4. 소결

□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수는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4년~2015년 사이에 상당수의 인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동 기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71.9%가 서울·경기 지역에 존재함

○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중 30~40대의 비율이 68.8%로 나타나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음

○ 금융·보험산업 종사자 수를 업권별로 구분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은행이 131,981명(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95,065명, 24%), 보험사(59,656명, 15%), 증권사(35,876명, 9%)가 그 뒤를 이음

○ 종사자 수는 2012년과 대비하여 증권(6,926명), 은행(5,612명), 보험(2,499명)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2,843명), 농업협동조합(2,765명), 자산운용사(1,517명), 리스사(858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33명이 감소함

○ 특히, 종사자 수 산정 시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사는 생명보험 33,601명(25.2%), 손해보험 11,173명(7%)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이는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채널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구인·채용 현황)** 2016년 금융·보험산업 구인인원은 10,775명으로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채용인원은 7,662명으로 구인인원의 71.1%에 해당됨. 구인·채용수요가 가장 많은 직종은 금융 및 보험 사무원으로 나타남

○ 은행·보험·여신의 경우 신규 채용을 선호하였으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은 경력 채용을 선호함. 또한 신규 채용의 경우 20대(64.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력 채용의 경우 30대(47.5%)가 주를 이룸

- 2016년 은행업권은 실제 채용 계획보다 실제 채용 규모가 작았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조직효율화 및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점포 수 감소 등에 따른 상황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40대 이상의 신규채용 비율은 13.5%에 불과했으나, 경력 채용은 34.5%로 나타나 40대 이상은 경력 채용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경력 채용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98.1%가 5년 이하의 경력자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연령 은퇴자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신규 및 경력 모두 정규직보다 전문계약직 중심의 비정규직의 채용 비율(신규 56.7%, 경력 54.3%)이 더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고졸 채용 비율이 다소 증가함

- 대졸 이상 인력의 경우, 신규직보다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 우수인력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됨

□ **(미충원 및 부족 현황)** 금융·보험산업의 미충원율은 3.9%로 전산업 평균(12.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고(27.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는 것(27.5%)으로 나타나 미스매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3년 이후 부족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채용계획 인원은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직 및 퇴직 현황)**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보험산업 이·퇴직자 수는 총 24,286명으로 자발적 이직(65.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업권별로는 은행(29.8%), 여신전문(22.5%), 보험(20.4%) 순으로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자발적 이직이 가장 높은 업권은 은행으로 나타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신청을 통한 인력 감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Ⅳ 금융 · 보험산업 인력 공급 현황

1. 정규교육 현황

1) 특성화고등학교

□ **(금융·보험산업 고졸인력 양성)** 금융·보험산업의 고졸인력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상업·정보계열 학과에서 양성됨

○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의 다섯 계열로 구분되며, 이 중 상업·정보 계열의 특성화고에서 금융·보험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특성화고 현황)** 2017년 4월 현재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는 191개교, 664개 학과, 4,616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정원은 120,446명, 현원은 119,472명임

○ 2012년부터 5년간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해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56]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교 수(A)	499	494	499	473	472
상업.정보(B)	186	185	187	184	185
비율(B/A)	37.3	37.4	37.5	38.9	39.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급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에 큰 폭으로 학급 수가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전체 학급 수 대비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57]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급 수(A)	7,829	11,626	11,661	11,288	11,142
상업.정보(B)	3,096	4,657	4,651	4,519	4,446
비율(B/A)	39.5	40.1	39.9	40.0	39.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도 꾸준히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58]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생 수(A)	223,068	320,374	313,449	302,021	290,632
상업.정보(B)	90,524	131,940	127,795	121,222	115,303
비율(B/A)	40.6	41.2	40.8	40.1	39.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금융·보험 관련 특성화고)** 전국에서 운영 중인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중 금융·보험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는 115개교임

○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중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115개교로, 400개 학과, 2,866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정원은 75,372명, 현원은 74,285명임

○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중 금융·보험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별 학과 정보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아래는 지역별 금융·보험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임

- 지역별 학교 수를 확인한 결과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경북, 서울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울산, 광주 순으로 확인됨

- 지역별 학급 수를 확인한 결과 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충북, 부산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급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 강원, 광주 순으로 확인됨. 학교당 학급 수를 확인한 결과, 학교당 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서울, 광주 순으로 확인되었고, 학교당 학급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경북, 충남 순으로 확인됨

- 지역별 학생 현원을 확인한 결과 현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충북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 강원, 광주 순으로 확인됨. 한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제주, 광주 순으로 확인되었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경남, 경기 순으로 확인됨

□ **(특성화고 취업 현황)**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양성된 인력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59] 금융·보험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학교 수	학교명	학급 수	정원	현원
서울	12	경기상업고등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대경상업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금융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98	9,946	9,946
부산	7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부산마케팅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210	5,139	5,043
대구	4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103	2,905	2,882
인천	5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132	3,891	3,891
광주	3	광주경영고등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82	2,536	2,536
대전	3	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93	3,730	2,764
울산	2	울산상업고등학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91	2,991	2,991
세종	-	-	-	-	-
경기	21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경기세무고등학교,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영북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용인정보고등학교, 이천세무고등학교, 정명정보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	730	17,301	17,309
강원	5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동해상업고등학교,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45	819	809
충북	11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제천상업고등학교, 증평정보고등학교, 진천상업고등학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227	6,443	6,438
충남	7	강경상업고등학교, 공주정보고등학교, 당진정보고등학교,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인터넷고등학교	136	3,784	3,784
전북	5	군산상업고등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덕암정보고등학교, 완산여자고등학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133	3,794	3,794
전남	8	목포성신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벌교상업고등학교, 병영상업고등학교, 순천청암고등학교, 순천효산고등학교,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진성여자고등학교	187	4,591	4,596
경북	14	감포고등학교, 강구정보고등학교,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경주마케팅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구미정보고등학교,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명인정보고등학교, 봉양정보고등학교, 영천상업고등학교, 평해정보고등학교, 효청보건고등학교	140	3,661	3,661
경남	7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경남정보고등학교,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밀성제일고등학교, 사천여자고등학교, 선명여자고등학교, 신반정보고등학교	135	3,091	3,091
제주	1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4	750	750
합계	151	-	2,866	75,372	74,285

자료: 교육부. (201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 2012년부터 5년간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자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이후 졸업자 수와 진학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는 2013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됨

[표60]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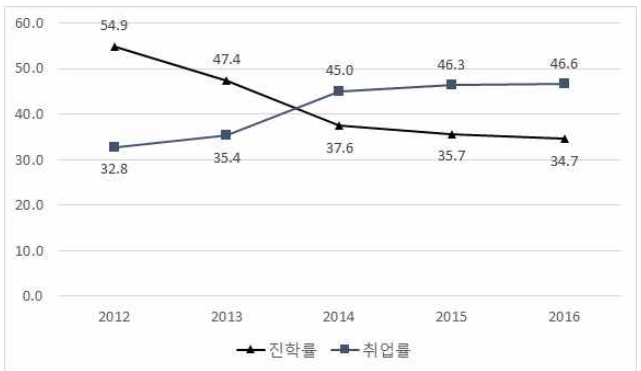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졸업자	146,522	141,744	105,612	100,941	100,337
진학자	80,468	67,184	39,668	36,028	34,778
취업자	48,046	50,146	47,519	46,760	46,716
기타 (무직자, 입대자, 미상)	18,008	24,444	18,425	18,153	18,84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확인해 본 결과 진학률은 201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20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17] 2012-2016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한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졸업자 중 약 3~4%만이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님

- 전체 계열 중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가 약 4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하는 학생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됨

[표61]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자 추이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취업자	48,046	50,146	47,519	46,760	46,716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1,408 (2.9)	2,009 (4.0)	1,610 (3.4)	1,307 (2.8)	1,664 (4.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업권별 고졸자 비중을 보면, 고졸 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은행이나 신협에서는 그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표62]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상호 저축	여신 전문	신협
고졸자 비중	18.5	**23.2**	17.6	8.0	2.9	14.5	14.6	**21.5**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2) 전문대학교

□ **(금융·보험 인력 양성)** 전문대학교의 경우 사회계열 학과에서 금융·보험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전문대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고등교육법」 제47조)

○ 전문대학교는 학칙으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전공심화과정을 두고 이를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요하고 있음

□ **(전문대학교 현황)** 2016년에 전문대학교는 총 138개교, 전문학사 과정 5,386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718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학생 697,214명 중 휴학생 241,322명을 제외한 455,892명이 재학 중임

○ 2012년부터 5년간 전문대학교의 학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63] 전문대학교 학교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 수	142	140	139	138	138
전년대비 증감률	-	△1.4	△0.7	△0.7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사회계열 전문대학의 학과우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계열 전문학사과정 운영은 감소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체 운영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64]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학과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전체 학과수(A)	6,284	317	5,924	565	5,637	605	5,649	662	5,386	718
사회계열 (B)	1,845	85	1,735	147	1,636	166	1,641	177	1,534	177
비율(B/A)	29.4	26.8	29.3	26.0	29.0	27.4	29.0	26.7	28.5	24.7

주: ①은 전문학사과정, ②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전체 학과 수에서 전문학사과정 운영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심화과정은 증가하였으나, 전문학사과정의 감소폭이 더 큼. 이는 사회계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

○ 2012년부터 5년간 사회계열 전문대학교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사회계열 학생 수도 크게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사회계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65]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생 수(A)	769,888	757,721	740,801	720,466	697,214
재학생	492,681	484,299	479,623	468,590	455,892
휴학생	277,207	273,422	261,178	251,876	241,322
사회계열(B)	188,009	183,811	176,756	166,383	157,512
재학생	129,709	124,573	120,478	113,094	107,293
휴학생	58,300	59,238	56,278	53,289	50,219
비율(B/A)	24.4	24.3	23.9	23.1	22.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전문대학교 졸업자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졸업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회계열 졸업생 수도 크게 감소하여 전체 졸업생 대비 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66] 사회계열 전문대학교 졸업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졸업생(A)	188,468	184,817	183,557	182,424	178,482
사회계열(B)	57,902	55,595	53,340	51,958	48,510
비율(B/A)	30.7	30.1	29.1	28.5	27.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업권별 전문대졸자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문대졸 학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협은 그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표67]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전문대 졸업자 비중	11.4	8.5	14.3	8.0	8.5	17.8	18.9	23.7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3) 4년제 대학교

□ **(금융·보험 인력 양성)** 4년제 대학교는 사회계열 학과에서 금융·보험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4년제 대학교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고등교육법」 제28조)

○ 4년제 대학은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요하며,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함

□ **(4년제 대학교 현황)** 2016년에 4년제 대학교는 총 189개교, 11,329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학생 2,084,807명 중 휴학생 591,088명을 제외한 1,493,719명이 재학 중임

○ 2012년부터 5년간 4년제 대학교의 학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 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68] 4년제 대학교 학교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 수	189	188	189	189	189
전년대비 증감률	-	△0.5	0.5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의 학과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과는 200개가량 증가했고 사회계열 학과는 50개 증가하여, 전체 학과 대비 사회계열 학과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음

[표69]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학과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과수(A)	11,124	11,126	11,018	11,169	11,329
사회계열(B)	2,534	2,543	2,527	2,547	2,584
비율(B/A)	22.8	22.9	22.9	22.8	22.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 이후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사회계열 학생 수는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학생 수 대비 사회계열 학생 수 비율은 2013년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70]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생 수(A)	2,103,958	2,120,296	2,130,046	2,113,293	2,084,807
재학생	1,484,231	1,505,445	1,529,307	1,520,850	1,493,719
휴학생	619,727	614,851	600,739	592,443	591,088
사회계열(B)	517,745	622,443	616,372	603,377	588,758
재학생	433,294	430,379	430,710	422,746	409,756
휴학생	195,451	192,064	185,662	180,631	179,002
비율(B/A)	24.6	29.4	28.9	28.6	28.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졸업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계열 졸업생 수도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전체 졸업생 수의 증가폭이 커 전체 졸업생 대비 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71] 사회계열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졸업생(A)	298,727	294,952	301,606	322,413	334,643
사회계열(B)	90,720	88,298	90,239	95,602	98,180
비율(B/A)	30.4	29.9	29.9	29.7	29.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업권별 대졸자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졸 학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든 업권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표72]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대졸자 비중	62.2	61.3	61.0	71.7	65.0	63.9	58.6	51.8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을 살펴보면, 경영/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문/사회, 공학이 그 뒤를 이었음

[표73]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경제	**46.7**	**45.4**	**41.5**	**59.2**	**60.5**	**41.8**	**44.0**	**44.8**
법률	4.7	4.1	4.7	3.6	5.8	6.2	8.7	4.8
인문/사회	**19.9**	**21.9**	**20.0**	**16.1**	**11.6**	**19.0**	**18.7**	**18.6**
컴퓨터/통신	5.2	4.0	6.5	5.6	4.1	6.9	8.1	4.6
공학	5.3	4.6	5.6	5.7	7.9	6.0	6.7	6.4
자연	4.8	3.7	7.4	5.3	3.7	6.5	3.7	5.2
기타	13.3	16.3	14.3	4.5	6.5	13.8	10.1	1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4) 대학원

□ **(금융·보험산업 인력 양성)** 대학원은 사회계열 학과에서 금융·보험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대학원도 4년제 대학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고등교육법」 제28조 참조)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됨. 이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원의 사회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금융·보험산업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음

*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대학원 현황)** 2016년에 대학원은 총 1,195개교, 석사과정 학과 10,504개, 박사과정 학과 4,84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학생 332,768명 중 휴학생 44,503명을 제외한 288,265명이 재학 중임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사회계열 학과 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학과 수 대비 사회계열 학과의 평균 비율은 석사과정이 23.1%, 박사과정이 20.7%로 나타남

[표74] 사회계열 대학원 학과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석사과정	전체 학과 수(A)	10,523	10,560	10,511	10,535	10,504
	사회계열(B)	2,383	2,395	2,431	2,479	2,478
	비율(B/A)	22.6	22.7	23.1	23.5	23.6
박사과정	전체 학과 수(C)	4,465	4,591	4682	5145	4,842
	사회계열(D)	927	950	973	1,049	1,015
	비율(D/C)	20.8	20.7	20.8	20.4	21.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사회계열 대학원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전체 학생 수는 2015년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16년 7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사회계열 학생 수는 2014년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다가 2015년 증가, 2016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765] 사회계열 대학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학생 수(A)	329,544	329,822	330,872	333,478	332,768
재학생	285,353	285,075	286,719	288,875	288,265
휴학생	44,191	44,747	44,153	44,603	44,503
사회계열(B)	86,976	86,429	85,898	86,673	85,589
재학생	74,105	73,648	73,435	74,474	73,494
휴학생	12,871	12,781	12,463	12,199	12,095
비율(B/A)	26.4	26.2	26.0	26.0	25.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2012년부터 5년간 대학원 졸업자 추이를 확인한 결과, 석사과정 전체 졸업생은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며, 사회계열 졸업생도 2013년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76] 사회계열 대학원 졸업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석사과정	전체 졸업생(A)	82,765	82,938	82,805	81,664	81,460
	사회계열(B)	23,620	23,774	①	23,502	23,370
	비율(B/A)	28.5	28.7	-	28.8	28.7
박사과정	전체 졸업생(C)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사회계열(D)	2,234	2,405	2,496	2,518	2,704
	비율(D/C)	18.2	19.0	19.3	19.3	19.5

주: ①은 데이터 없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 전체 졸업생 대비 사회계열 졸업생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박사과정 전체 졸업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 졸업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원졸 학력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에서는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표77]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대학원 졸업자 비중	7.9	6.9	7.1	**12.3**	**23.5**	3.8	7.9	3.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2. 비정규교육 현황

1) 금융·보험전문 교육기관

□ **(전문 교육기관 현황)** 금융·보험산업은 업권별로 주된 사업내용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직무내용도 상이하여 업권별 연수원(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등을 통해 산업 내 재직자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의 교육은 집합연수와 사이버연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연수의 절반 정도가 사내교육(3개월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은 1976년 개원하여 금융전문분야 연수를 통한 인력양성과 금융전문자격제도 및 전문도서 출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운영)**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12개 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과정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외환, IB/국제금융/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법률/컴플라이언스, 스마트금융, 경영공통, 글로벌, HR/IT, 경영관리, 리더십 과정임([참조 2] 참고)

- 각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자격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합교육, 통신교육, 사이버교육 과정을 과정별로 제공하고 있음

○ **(자격제도 운영)** 금융연수원에서는 금융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연수원 자체 자격시험도 운영하고 있음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는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신용위험분석사(CRA) 등 5가지가 있음

-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수여하는 자격으로는 은행텔러, 외환전문역,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글로벌IB전문가, 글로벌 자산운용역, 자금운용역, 기업재무상담사 등이 있음

□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 대리점 교육 및 평가시험관리와 더불어 외국 보험전문 자격시험 대행업무를 수행함

○ **(교육과정 운영)** 보험회사(생보사 및 손보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보험전문인(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함. 연수프로그램은 교육방식에 따라 집합과정, 사이버과정으로 분류됨([참조 3] 참고)

- 집합과정은 보험직무, 자격, 보험영업, 재무/법률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이며, 사이버과정에서는 보험전문 및 금융전문과정, 경영전문과정 외에도 교양, IT과정, 종합자산관리사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격제도 운영)** 보험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는 보험심사역,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대행인 등이 있음

□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원은 2009년 2월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되어 금융투자협회가 출범됨에 따라 기존 증권연수원을 확대·개편한 기관으로 금융투자업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영위업무에 필요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운영)**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크게 금융직무교육, 맞춤교육, 자격과정, 동남권 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참조 4] 참고)

○ **(자격제도 운영)** 주관 자격으로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 증권투자권유전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전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등이 있음

2)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 **(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및 근로주와 기업(사업주)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구직자 훈련과정)** 구직자 훈련과정은 구직자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NCS 분류상 금융·보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표78] 구직자 훈련과정 현황

연도	지역	과정명	모집정원	개설횟수	훈련시간(일/시간)	NCS직무	NCS수준
2015	서울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 과정	40	1	14/85	창구사무	2
	인천	손해보험 멀티총무매니저 양성과정	20	6	27/160	보험계약·보전	4
	광주	금융서비스실무	28	1	37/268	-	-
2016	서울	보험행정사무원 양성	20	4	40/160	보험계약·보전	4
		보험행정사무원	20	1	40/160	보험계약·보전	4
	대구	기업 금융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심화과정	30	1	124/600	-	-
	인천	손해보험 멀티 총무매니저 양성과정	20	2	40/160	보험계약·보전	4
		보험 멀티 총무매니저 실무자 양성 과정	12	8	20/120	보험모집	3
		보험 총무사무원 양성 과정	16	1	40/160	보험계약·보전	5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업훈련포털 HRD-Net. 구직자 훈련과정.

○ 2015년은 금융 관련 교육 1개, 보험 관련 교육 2개로 총 3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었으며,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이며, 모집정원은 총 188명이었음

○ 2016년은 총 6개의 보험 관련 교육과정만 제공되었으며,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이며, 모집정원은 총 282명이었음

□ **(근로자 훈련과정)** 근로자 훈련과정은 재직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향상 및 경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NCS 분류상 금융·보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2015년에는 금융 관련 교육 3개, 보험 관련 교육 1개로 총 4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었으며,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역은 부산, 인천이며, 모집정원은 총 100명이었음

○ 2016년은 총 1개의 보험 관련 교육과정만 제공되었으며,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역은 인천이며 모집정원은 총 12명이었음

[표79] 근로자 훈련과정 현황

연도	지역	과정명	모집정원	개설횟수	훈련시간(일/시간)	NCS직무	NCS수준
2015	부산	자산관리사 2부	20	1	14/42	신탁자산관리	4
		판매하지 않는 세일즈 스킬과정	40	1	8/24	기업영업	1
		Win-Win 협상스킬	20	1	8/24	기업영업	3
	인천	손해보험 멀티 총무매니저 실무자 양성과정	20	1	20/60	보험계약·보전	4
2016	인천	보험 총무사무원 양성과정	12	1	30/180	보험모집	4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업훈련포털 HRD-Net. 근로자 훈련과정.

□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 과정은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NCS 분류상 금융·보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일학습병행 과정의 운영 형태는 총 4가지로 일학습, 도제학교,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유니테크의 형태로 운영되며, 훈련기관과 기업의 협약 형태에 따라 단독기업, 공동훈련, IPP 등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함. 현재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NCS 세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80]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세분류 항목

분류수준			자산평가사	자산운용사	손해사정사	부동산신탁사	증권사	보험대리점	저축은행
중	소	세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		○	○	○
		기업영업					○		
		PB영업			○		○	○	
		카드영업							
	금융상품개발	여수신상품개발							
		투자상품개발				○	○		
		연금상품개발							
		카드상품개발							
	신용분석	개인신용분석					○		
		기업신용분석					○		
		여신심사							○
	자산운용	펀드운용		○		○	○		
		주식.채권운용	○	○		○			
		파생상품운용	○	○			○		
		대체투자				○			
		신탁자산관리				○			
	금융영업지원	결제							
		채권추심							
		리스크관리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		
		외환.파생업무							
		인수업무					○		
		증권상장업무					○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무역금융업무							
보험	보험상품개발	보험동향분석						○	
		보험상품개발						○	
		보험계리							
	보험영업계약	보험모집						○	
		보험계약심사			○			○	
		보험계약.보전			○			○	
		위험관리						○	
	손해사정	재물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			○			○	

주1: 자산평가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은 모듈형 프로그램임
주2: 위 표는 기본적인 세분류를 나타낸 것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

○ **(일학습병행제 현황)** 16년 말 현재 56개 기업 277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20社(60명), 보험대리점 10社(42명), 증권사 7社(75명), 부동산신탁 5社(35명), 손사법인 5社(44명), 평가사 2社(22명), 자산운용 8社(20명)임

- 2015년에는 총 11개의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서울, 부산, 강원, 경남 지역의 9개 기업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 주로 금융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다수 개설되었으며, NCS 수준 상 3~5 사이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었음

[표81] 2015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현황

지역	운영형태	기업명	과정명	NCS분류			NCS 수준
				중	소	세	
서울	단독기업	신영증권(주)	금융업무관리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단독기업	신영증권(주)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자산관리]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단독기업	하나금융투자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5
	공동훈련(협약기업)	유진투자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5
	공동훈련(협약기업)	키움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5
	단독기업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재무설계사	보험	보험영업계약	보험모집	3
	단독기업	롯데손해보험(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_L3)	보험	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3
부산	공동훈련(협약기업)	(주)BNK투자증권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5
강원	단독기업	강원신용보증재단	채권추심	금융	금융영업지원	채권추심	5
경남	단독기업	㈜경남은행	2015년 7급 신입행원 양성연수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단독기업	㈜경남은행	2015년 5급 신입행원 양성연수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업훈련포털 HRD-Net.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 2016년에는 총 62개의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의 60개 기업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 주로 금융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다수 개설되었으며, NCS 수준 상 3~5 사이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었음

[표82] 2016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현황

지역	운영형태	기업명	과정명	NCS분류			NCS 수준
				중	소	세	
서울	단독기업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업무관리 (금융업무관리_L3)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단독기업	신영증권(주)	금융업무관리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단독기업	한국재무설계(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금융영업	PB영업	5
	공동훈련(협약기업)	더케이저축은행(주)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공동훈련(협약기업)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펀드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인벡스자산운용주식회사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펀드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식회사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펀드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펀드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라임자산운용주식회사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펀드운용	4
	단독기업	신영증권(주)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자산관리]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주)에프앤가이드	투자운용 및 데이터관리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주)에프앤자산평가	투자운용 및 데이터관리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단독기업	신영증권(주)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자산관리]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하이자산운용(주)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4
	공동훈련(협약기업)	한국토지신탁(주)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신탁자산관리	5
	공동훈련(협약기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신탁자산관리	5
	공동훈련(협약기업)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신탁자산관리	5
	공동훈련(협약기업)	한국자산신탁(주)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신탁자산관리	5
	공동훈련(협약기업)	(주)생보부동산신탁	자산운용	금융	자산운용	신탁자산관리	5

지역	운영형태	기업명	과정명	NCS분류			NCS 수준
				중	소	세	
서울	공동훈련 (협약기업)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단독기업	대신증권 (일학습 병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유진투자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공동훈련 (협약기업)	키움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공동훈련 (협약기업)	HMC투자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공동훈련 (협약기업)	한양증권(주)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단독기업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영업계약(보험 영업계약관리_L3)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3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리치앤코	보험영업·계약A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케이지에이에셋 주식회사	보험영업·계약A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글로벌금융 판매	보험영업·계약A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메가주식회사	보험영업·계약A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노블리지에셋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상장기업 금융센터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ITX마케팅(주)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케이엠아이에셋(주)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우리라이프(주)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공동훈련 (협약기업)	한국보험금융(주)	보험영업·계약B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단독기업	비큐러스주식회사 (일학습병행)	보험영업.계약(보험 영업.계약관리L5 ver2.0)	보험	보험영업 계약	보험계약 .보전	5
	단독기업	탑화재특종 손해사정㈜	손해사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교육	보험	손해사정	재물손해 사정	3
	단독기업	동부자동차보험 손해사정(주)	손해사정_L3ver2.0	보험	손해사정	차량손해 사정	3
	공동훈련 (협약기업)	파란손해사정 주식회사	손해사정(신체)B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코마화재특종손 해사정(주)	손해사정(신체)B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지역	운영형태	기업명	과정명	NCS분류			NCS 수준
				중	소	세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식회사엠손해 사정	손해사정(신체)A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공동훈련 (협약기업)	바른화재특종손 해사정주식회사	손해사정(신체)A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캄코화재특 종손해사정	손해사정(신체)A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단독기업	동부CAS손해사정(주)	손해사정_L3	보험	손해사정	신체손해 사정	5
부산	단독기업	(주)부산은행	은행업무 실무자(5,6급)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식회사비엔케 이저축은행	금융투자담당자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BNK투자증권	금융자산관리	금융	증권·외환	증권거래 업무	5
대구	단독기업	(주)대구은행	2017년 중견신입행원 채용예정자 과정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IPP (협약기업)	㈜엠에스상호 저축은행	금융자산관리(은행) _L5	금융	금융영업	PB영업	5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대백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드림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인천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모아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광주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대한상호저 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대전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오투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4
충북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청주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4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한성상호저축 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4
충남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세종상호저축 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4
전북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삼호저축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4
경남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동원제일저축 은행	금융(금융업무관리 _L3)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단독기업	㈜경남은행	2015년 7급 신입행원 양성연수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3
	공동훈련 (협약기업)	(주)진주상호저축 은행	금융업무 및 영업	금융	신용분석	여신심사	4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업훈련포털 HRD-Net.

3) 지역 양성 및 향상 훈련 현황

□ **(RC 교육훈련 현황)** 지역의 양성 및 향상 훈련 현황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의 인력양성 수요·공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되었음

○ **(조사 업종)** 조사대상이 되는 업종은 각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의 유망산업, 산업거점별 주요산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2016년에는 부산과 울산, 전북 지역에서만 금융·보험업에 관한 인력양성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였음

○ **(조사 방법)**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근로자 현황, 채용 및 훈련 방침, 회사 내 부서 구성, 인력 현황, 신규 채용자 요구역량을 조사하였고, 현업·기술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과, 근로자 현황, 채용 및 훈련 방침을 (훈련 필요인원, 필요한 훈련분야) 조사하였음

□ **(부산)** 부산 지역에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과 관련하여 향상 훈련수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270명으로 집계되었음

○ **(직업기초능력 훈련 수요 조사결과)**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NCS 직무관련 훈련 수요 조사)**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이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여신심사, 창구사무, 개인신용분석, PB 영업, 보험계약 심사 순으로 확인됨

[표83] 부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업기초능력 관련

(단위: 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207		8	399
구분	**직업기초능력**	**빈도**	**%**	**순위**	**하위능력**
1순위	(06)대인관계능력	159	39.7	1	고객서비스능력
				2	협상능력
				3	갈등관리능력
				4	팀웍능력
				5	리더십능력
2순위	(08)기술능력	64	15.9	1	기술적용능력
				2	기술이해능력
				3	기술선택능력
3순위	(01)의사소통능력	51	12.8	1	언어구사능력
				2	경청능력
				3	문서이해능력
				4	문서작성능력
4순위	(10)직업윤리	50	12.5	1	근로 윤리
				2	공동체 윤리
5순위	(03)문제해결능력	28	7.1	1	문제처리능력
				2	사고력

자료: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표84] 부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단위: 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207		12	183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03010303) 여신심사	65	35.7	1	여신조건 결정
				2	가망기업 고객 발굴
				3	문제여신 관리
				4	여신 심사보고서 작성
				5	여신 실행
2순위	(03010101) 창구사무	27	14.8	1	출납관리
				2	금융소비자 보호
				3	전자금융 서비스
				4	부수업무 처리
				5	입지급거래
3순위	(03010301) 개인신용분석	27	14.6	1	가망기업 고객 발굴
				2	신용등급 사후관리
				3	개인신용 분석 · 응용
4순위	(03010103) PB영업	20	11.1	1	가망기업 고객 발굴
5순위	(03020202) 보험계약심사	18	9.9	1	심사업무관리
				2	인수기준 수립
				3	심사업무지원
				4	신체적 인수위험평가
				5	환경적 인수위험평가

자료: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 **(울산)** 울산 지역에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직종과 관련하여 향상 훈련수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54명으로 집계되었음

○ **(직업기초능력 훈련 수요 조사결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개발이,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은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이, 보험 관련 영업원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86] 울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업기초능력 관련

(단위: 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654		5	7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대인관계능력	7	100.0	1	갈등관리능력
				2	협상능력
				3	고객서비스능력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654		5	308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대인관계능력	252	81.8	1	고객서비스능력
				2	협상능력
				3	갈등관리능력
2순위	자기개발능력	27	8.6	1	자기개발능력
				2	경력개발능력
				3	자아인식능력
3순위	문제해결능력	15	4.8	1	문제처리능력
				2	사고력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보험 관련 영업원		654		5	3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의사소통능력	1	40.3	1	경청능력
2순위	대인관계능력	1	34.5	1	협상능력
				2	고객서비스능력
3순위	자기개발능력	1	25.2	1	자기개발능력
				2	경력개발능력

자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울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표85] 울산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단위: 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654		5	12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03010103) PB영업	7	54.2	1	고객창출
				2	고객상담
				3	고객제안.실행
2순위	(03010402) 채권.증권운용 (주식.채권운용)	6	45.8	1	주식.채권 투자목표 수립
				2	여신사후관리
				3	여신 실행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654		5	321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03010101) 창구사무	196	61.1	1	펀드 세일즈
				2	신용카드 세일즈
				3	방카슈랑스 세일즈
2순위	(03010303) 교환어음처리 (여신심사)	97	30.1	1	문제여신 관리
				2	여신사후관리
				3	여신 실행
3순위	(03020203) 보험계약.보전	10	3.0	1	계약보전 전략수립
				2	계약유지 안내장 관리
				3	보유고객 정보관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보험 관련 영업원		654		5	3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03020201) 보험청약 (보험모집)	2	64.6	1	판매전략 수립
2순위	(03010104) 카드영업	1	35.4	1	개인영업

자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울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 **(NCS 직무관련 훈련 수요 조사)**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가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PB영업과 채권·증권운용 순인 것으로

확인됨.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이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창구사무, 교환어음처리, 보험계약·보전 직무 순인 것으로 확인됨. 보험 관련 영업원이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보험청약, 카드 영업 순인 것으로 확인됨

□ **(전북)** 전북 지역에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직종과 관련하여 향상 훈련수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54명으로 집계되었음

○ **(NCS 직무관련 훈련 수요 조사)**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가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PB영업과 채권·증권운용 순인 것으로 확인됨.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이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창구사무, 교환어음처리, 보험계약·보전 직무 순인 것으로 확인됨. 보험 관련 영업원이 향상할 필요가 있는 직무는 보험청약, 카드 영업 순인 것으로 확인됨

[표87] 전북지역 훈련 수요 조사 결과_직무관련

(단위: 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28		-	321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금융영업	-	-	1	창구사무
2순위	금융영업지원	-	-	1	채권추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향상훈련 수요**		**NCS 응답 수**	**총 빈도**
보험 관련 영업원		28		-	3
구분	**NCS 세분류**	**빈도**	**%**	**순위**	**능력단위**
1순위	금융영업	-	-	1	기업영업
2순위	보험영업.계약	-	-	1	보험모집

자료 :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3. 소결

□ **(공급 규모의 축소 전망)** 정규교육 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비정규교육 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도 일부 직무를 제외한 분야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상업·정보계열, 사회계열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폭이 소폭이지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9년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보험업권의 필요인력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나 교육과정을 공급 감소 발생 이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학력별 취업 현황 및 특징)**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3~4%만이 금융 및 보험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업권별 고졸자 비중을 보면, 고졸 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은행(23.2%)이나 신협(21.5%)에서는 그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업권별 대졸자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졸 학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든 업권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을 살펴보면, 경영/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문/사회, 공학이 그 뒤를 이었음

○ 한편, 증권/선물(12.3%)과 자산운용/신탁(23.5%)에서는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재직자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 요구)** 비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재직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임

○ 금융·보험전문 교육기관은 다양한 금융·보험관련 교육을 제공하지만 금융·보험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보험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재직자가 아닌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함

○ 그렇다면,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이 위에서 제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나,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일부 NCS 세분류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금융·보험업 NCS 세분류 수준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에 대해서 교육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교육 기관은 금융·보험업 관련 전문 교육을 금융·보험 관련 업종 비종사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근로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Ⅴ 금융 · 보험산업 인력 수급 전망

1. 수요 전망

□ **(인력 수요 전망)** 수요 전망은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과 일자리 전망,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되었음

□ **(채용계획)**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의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전산업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내 부족률은 0.8%에 그치고 있어 전산업의 부족인원과 부족률에 비하면 부족인원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88]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

(단위: 명, %)

구분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전산업(A)	288,195	308,387	2.6
금융·보험업(B)	3,664	3,636	0.8
전산업 대비 비율(B/A)	12.7	1.1	

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반기를 주기로 행해지는 조사로, 본 자료에서는 2016년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함.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한 값을 활용함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6).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인원_산업별·규모별

○ 직종에 따른 부족인원은 2,436명으로 부족인원이 다소 줄어듦.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원의 부족인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와 보험 관련 사무원이 그 뒤를 이음

[표89]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직종별)

(단위: 명, %)

구분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전산업(A)	288,195	308,387	2.55
금융·보험 관련직(B)	2,436	2,479	0.75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336	419	0.8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808	1,762	0.75
보험 관련 사무원	293	298	0.8
전산업 대비 비율(B/A)	0.8	0.8	

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반기를 주기로 행해지는 조사로, 본 자료에서는 2016년 1/2와 2/2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함. 소수점으로 떨어진 경우 올림한 값을 활용함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6).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인원_산업별·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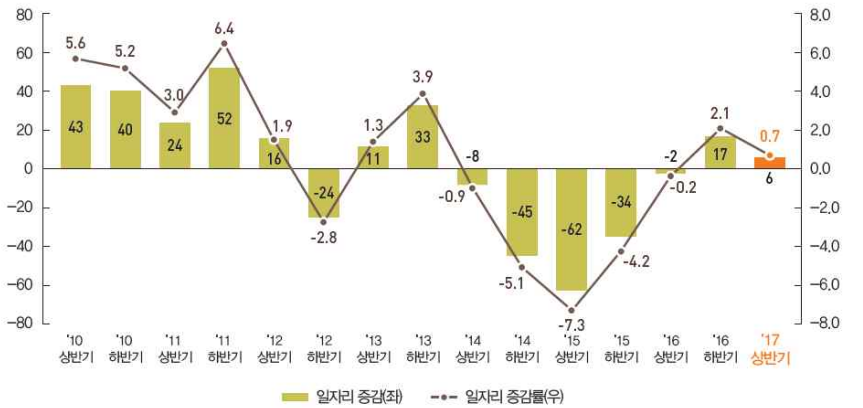
□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2017)의 금융 및 보험산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 결과,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6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직종별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일자리가 감소하나 금융·보험 관련직과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18]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주: 여기서 일자리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 인원을 의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p.44-45

□ **(취업자 전망)** 한국고용정보원(2015)의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전망 기간 동안 취업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업은 2014년 355천 명에서 2024년 363천 명으로 연평균 0.2% 증가세를 보이고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금융권 내부 구조조정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라는 판단이 전망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산업의 취업자 분포를 보면, 금융업 분야 종사자,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아 과거의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90]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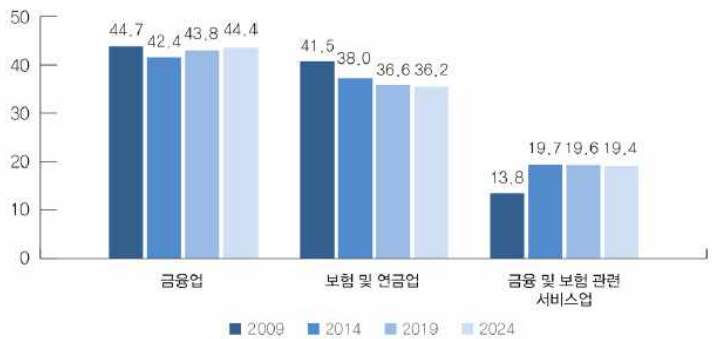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09	'14	'19	'24	'09~'14	'14~'19	'19~'24	'14~'24	'09~'14	'14~'19	'19~'24	'14~'24
금융 및 보험업	766	837	809	818	71	-28	8	-20	1.8	-0.7	0.2	-0.2
금융업	343	355	354	363	12	0	9	8	0.7	0.0	0.5	0.2
보험 및 연금업	318	318	296	296	0	-22	0	-22	0.0	-1.4	0.0	-0.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6	165	159	159	59	-6	0	-6	9.3	-0.7	0.0	-0.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그림19]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 향후 10년 동안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전망된 기관은 투자기관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은행 및 저축기관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기타 금융업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취업자의 감소가 전망됨

○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취업자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 및 연금업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보험업은 연평균 0.7%씩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향후 10년 간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연평균 0.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91] 금융 및 보험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09	'14	'19	'24	'09~'14	'14~'19	'19~'24	'14~'24	'09~'14	'14~'19	'19~'24	'14~'24
금융업	343	355	354	363	12	0	9	8	0.7	0.0	0.5	0.2
은행 및 저축기관	269	271	273	279	3	2	6	8	0.2	0.2	0.4	0.3
투자기관	8	7	7	8	-2	0	1	1	-4.4	1.3	1.7	1.5
기타 금융업	66	77	74	76	11	-3	2	-1	3.1	-0.8	0.6	-0.1
보험 및 연금업	318	318	296	296	0	-22	0	-22	0.0	-1.4	0.0	-0.7
보험업	304	306	286	286	2	-20	-1	-20	0.2	-1.4	0.0	-0.7
연금 및 공제업	13	11	10	10	-2	-1	0	-1	-3.4	-2.1	0.3	-0.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6	165	159	159	59	-6	0	-6	9.3	-0.7	0.0	-0.4
금융지원 서비스업	59	66	59	66	7	-6	6	0	2.3	-1.9	2.0	0.0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47	99	99	93	52	0	-6	-6	16.0	0.1	-1.3	-0.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 **(추가 예상 규모)** 한국금융연구원(2016)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89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6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329개의 회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92]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조사회사	1,389	58	57	60	149	79	81	905
응답회사	329	11	10	16	43	48	26	175
계	23.7	7.1	6.5	10.4	27.9	31.2	16.9	19.3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응답회사의 수는 향후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무응답 회사와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회사는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함. 따라서 응답회사는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에 가까움

○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는 총 2,886명으로 상호저축과 여신전문 업권에서 가장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신탁 업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표93]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예정인원	2,886	333	269	399	147	702	692	344
비중	100.0	11.5	9.3	13.8	5.1	24.3	24.0	11.9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에서 가장 많은 인원(1,964명, 68.1%)이 채용될 예정이며, 경영관리 직무(382명, 13.2%)가 뒤를 이음

[표94]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기타
예정인원	2,886	382	1,964	262	132	33	53	47	13
비중	100.0	13.2	68.1	9.1	4.6	1.1	1.8	1.6	0.5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은행(98.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신탁(85.3%), 신협(73.8%), 여신전문(56.6%), 보험(54.6%), 상호저축(50.9%), 증권/선물(39.4%) 순으로 나타남

[표95]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정규직	68.2	98.8	54.6	39.4	85.3	50.9	56.6	73.8
비정규직	31.8	1.2	45.4	60.6	14.7	49.1	43.4	2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채용 예상 인력)** 직무분류에 따른 업권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표96]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13.2	1.8	29.4	13.5	19.7	6.0	17.9	14.0
영업·마케팅	68.1	97.0	46.1	57.6	12.9	75.4	65.2	83.7
영업지원	9.1	0.9	3.0	3.3	2.0	18.4	14.3	2.0
자산운용	4.6	0.3	1.9	12.8	50.3	-	-	0.3
자산관리	1.1	-	-	2.8	15.0	-	-	-
보험	1.8	-	19.7	-	-	-	-	-
투자은행	1.6	-	-	10.0	-	0.1	0.9	-
기타	0.5	-	-	-	-	0.1	1.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로 인하여 총 채용예정 규모와 직무별 채용예정인원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비중만을 제시하였음.

○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의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은행 97.0%, 신협 83.7%, 상호저축 75.4%, 여신전문 65.2%, 증권/선물 57.6%, 보험 46.1%, 자산운용/신탁 12.9% 순으로 조사됨. 한편 자산운용/신탁은 자산운용 직무를 절반 이상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0대의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97]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4.2	7.4	10.1	-	4.1	1.6	0.4	7.0
20대	67.2	72.5	51.2	47.5	24.5	75.4	77.6	76.2
30대	22.2	17.4	26.4	35.4	55.1	20.4	18.9	10.5
40대	5.4	2.6	11.1	14.1	15.0	2.4	2.8	2.9
50대 이상	1.0	0.1	1.2	3.0	1.4	0.1	0.3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로 인하여 총 채용예정 규모와 연령별 채용예정인원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비중만을 제시하였음.

□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모든 업권에서 5년 이하의 근무경력 인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

[표98]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5년 이하	81.6	85.3	60.8	74.6	49.0	96.4	81.1	83.4
6~10년	13.2	9.7	29.6	20.6	39.7	2.9	11.7	11.0
11~15년	3.9	3.2	9.6	4.8	9.3	0.4	6.2	1.2
16~20년	0.7	1.4	-	-	1.3	0.1	0.7	0.9
20년 초과	0.6	0.5	-	-	0.7	0.1	0.2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로 인하여 총 채용예정 규모와 연령별 채용예정인원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비중만을 제시하였음.

□ **(학력별 채용예상 규모)** 학력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 상호저축 업권에서는 대졸자 다음으로 고졸자의 채용예정비율이 높고, 보험, 증권/선물, 여신전문, 신협의 경우 전문대졸업자가,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99]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 예상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12.7	13.1	16.0	2.3	4.1	25.1	1	13.7
전문대졸	11.1	2.4	17.5	13.8	-	15.5	9.2	20.3
대졸	74.4	83.3	63.1	79.9	90.3	58.3	89.8	66.0
대학원졸	1.7	1.2	3.4	4.0	5.5	1.2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주 :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회사로 인하여 총 채용예정 규모와 연령별 채용예정인원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비중만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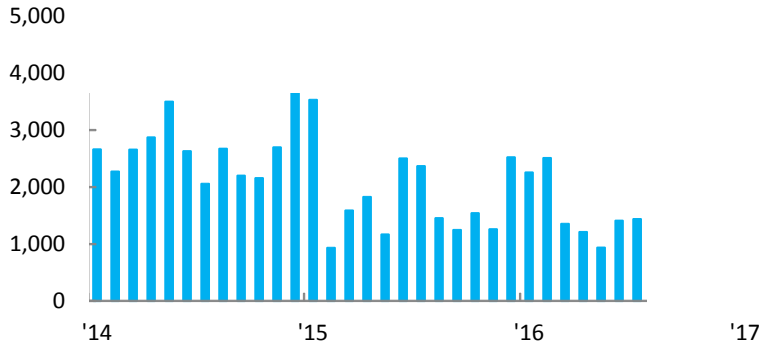
□ **(취업자 수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17)에서는 금융업 부가가치 증가가 금융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 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함. 그 결과 2017년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5,929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6,000여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6년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증가폭인 8,000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임

- 2016년 12월 이후 금융·보험업권 비자발적 이직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20] 금융·보험업권 비자발적 이직자수

(단위: 명)



주 : 1)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5,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원, 빈 일자리 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함.

2) 이직자는 조사기준월(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직한 근로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공급 전망

□ **(분석방법)**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와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전문대학 전공 계열별 졸업생 수 전망)** 전문대 졸업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의약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사회계열의 졸업생 증감률이 다른 계열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계열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사회계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1%씩 감소하였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100] 전문대학 사회 계열 졸업생 수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09	'14	'19	'24	'09~'14	'14~'19	'19~'24	'14~'24	'09~'14	'14~'19	'19~'24	'14~'24
전체 졸업생(A)	199	184	170	133	-16	-14	-36	-50	-1.6	-1.5	-4.7	-3.1
사회계열(B)	62	53	48	37	-9	-5	-11	-16	-3.1	-2.0	-5.0	-3.5
비율(B/A)	31.2	28.8	28.2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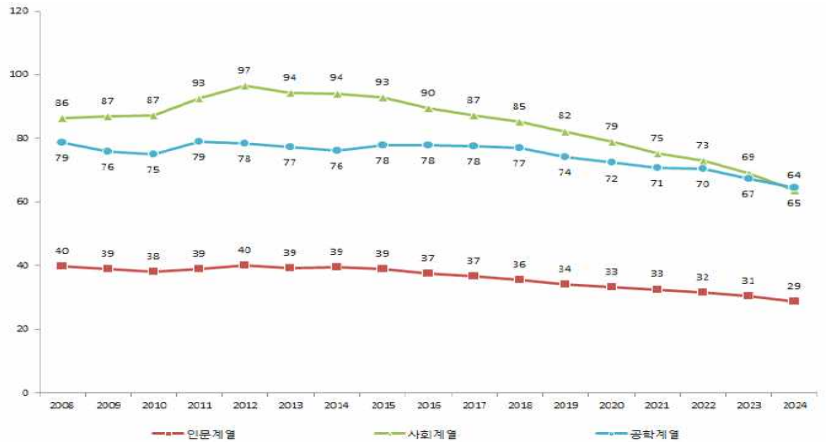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 **(대학 전공별 졸업생 수 전망)** 전공별로 감소 시기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전공에서 대학의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사회계열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졸업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21] 대학교 전공 계열별 졸업생 수 전망

(단위: 천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 한편, 2011~2017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는 매년 53,19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음(한국금융연구원, 2016)

- 이 연구에서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공별로는 경제·경영이 매년 대략 45,000명, 금융·회계·세무는 대략 7,000명의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추정함

[표101] 금융인력 공급규모: 전공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17	55,498	47,761	7,728
2018	54,455	46,863	7,583
2019	53,285	45,856	7,420
2020	51,937	44,696	7,232
2021	50,802	43,719	7,074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 **(대학원 전공 계열별 졸업생 수 전망)** 201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사회계열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졸업생 수가 증가하였고 2019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졸업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표102] 대학원 사회 계열 졸업생 수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감률(연평균)			
	'09	'14	'19	'24	'09~'14	'14~'19	'19~'24	'14~'24	'09~'14	'14~'19	'19~'24	'14~'24
전체 졸업생(A)	86	96	109	80	10	13	-29	-16	2.3	2.6	-6.1	-1.8
사회계열(B)	22	27	32	24	5	5	-8	-3	4.1	3.5	-5.5	-1.1
비율(B/A)	25.6	28.1	29.4	3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 **(금융인력 자격별 인력공급 전망)** 금융 인력은 2017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보험 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은 전체 자격별 인력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합격자 평균증가율 감소로 인해 향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부문은 보험계리사는 향후 감소하나 손해사정사 합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103] 금융인력 공급규모: 자격증별 기준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 부문	291,968	286,701	281,529	276,450	271,462
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	107,701	99,110	91,204	83,929	77,234
증권투자권유전문인력	79,683	72,899	66,692	61,014	55,820
파생상품투자권유전문인력	68,257	72,598	77,215	82,126	87,349
금융투자분석사	5,921	4,089	2,824	1,950	1,347
투자자산운용사	768	644	541	454	381
재무위험관리사	164	132	107	87	70
신용분석사	863	1,076	1,342	1,674	2,087
외환전문역 Ⅰ종	8,285	12,611	19,195	29,217	44,471
외환전문역 Ⅱ종	3,273	4,547	6,316	8,774	12,189
자산관리사	348	319	293	269	246
여신심사역	53	57	61	66	72
신용위험분석사	42	47	52	58	64
보험 부문	3,031	3,032	3,034	3,035	3,036
보험계리사	479	347	252	182	132
손해사정사	2,759	3,151	3,599	4,110	4,694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3. 소결

□ **(수요전망)**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금융·보험산업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의 부족인원은 3,664명으로 전산업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내 부족률은 0.8%에 그치고 있어 전산업의 부족인원과 부족률(2.6%)에 비하면 부족인원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금융 및 보험산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 결과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한국고용정보원, 2017)

○ 금융 및 보험업의 중장기 취업자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4~2019년 기간 동안 취업자가 소폭(28,000명) 감소할 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고용정보원, 2015)

○ 한국금융연구원(2017)에서는 2017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전년대비 4.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약 6,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2016년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증가폭인 8,000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2016년 12월 이후 금융·보험업권 비자발적 이직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공급전망)** 대학의 전공별 졸업생 수 전망 결과 전공별로 감소 시기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전공에서 대학의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고용정보원, 2015)

○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사회계열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졸업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1~2017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는 매년 53,19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음(한국금융연구원, 2016)

- 이 연구에서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공별로는 경제·경영이 매년 대략 45,000명, 금융·회계·세무는 대략 7,000명의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추정함

○ 금융인력 자격별 인력공급 전망을 살펴보면 금융 인력은 2017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보험 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금융연구원, 2016)

- 금융부문은 전체 자격별 인력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합격자 평균증가율 감소로 인해 향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부문은 보험계리사는 향후 감소하나 손해사정사 합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요를 예측한 공급대응 필요)** 최근 금융·보험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IT 융합인력 등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 전략이 필요함

○ 금융·보험업권의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핀테크, 금융보안 등)에 대해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의 인력공급은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할 수 없음

○ 따라서 필요한 신규인력과 요구되는 역량을 조사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자격과정 신설 필요)** 향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 개발과 질 관리를 위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자격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주요 직무에 대한 고객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공인하고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수요가 예측되는 직무가 점차 금융·보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직무도 주요 업무로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보험업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자격과정과 체계를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1. 결론

□ **(산업 및 고용 전망)** 금융·보험 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 및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영업환경 불안정, 인터넷 전문은행 등 비금융회사의 금융 산업 진출 확대 등에 따른 경쟁 격화 및 저수익 구조 고착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발전에 따른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대에 따른 지점 수 감소*와 이를 계기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의 구조조정 현상 지속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고용환경 역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씨티은행의 소매영업점의 80% 폐쇄 방침 발표(2017.4월) 및 금감원의 금년도 5대 은행 점포 운영계획 조사 결과 303개 추가 축소 예정 등

** 2017년 인크루트 채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64% 감소할 것으로 전망(전체 업종 중 감소폭 순으로 3위에 해당)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전문계약직 중심의 비정규직 및 경력직 증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근속연수 감소로 종전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로서 금융보험산업 고용의 특성마저 점차 퇴색되고 있음

□ **(디지털화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핀테크 및 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뱅킹의 확산과 같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기존 금융시장의 인력구조와 인프라 등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만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음

○ 비대면거래 확산에 따른 영업점의 급격한 축소와 온라인 등 판매채널의 확대는 금융보험회사의 출납창구사무원 및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영업점에 기반하여 근무하던 전통적 핵심 금융산업인력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으로 작용함

○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과 기술금융 분야가 금융권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핀테크 경쟁에 돌입한 금융회사들이 관련 사업 및 조직의 확대에 맞춰 최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금융시대를 선도할 IT 융합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 등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등 공급 체계 미흡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블록체인·바이오인증 등 관련 인력의 수요도 증가함

□ **(수익원 다변화 및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유망 분야)** 금융·보험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저금리·저성장·고령화시대의 금융환경 및 제도변화에 맞춰 글로벌 시장 공략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특정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자산관리 전문가)** 지난해 말 자산관리 시장 규모는 1741조 원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정부까지 나서 국민의 종합자산관리 수단 확대를 위한 신탁업 활성화 지원으로 비이자이익 확대가 절실한 은행이 자산관리를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관련 서비스 및 조직을 크게 강화함

- 한편, 자산운용업권에서도 사모펀드(PEF) 인기에 힘입어 사모펀드 전용 운용사가 대폭 증가(88개)하였으며 증권회사에서도 대형점포 전략 등을 통해 PB 영업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금융회사에 소속되거나 제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회사나 개인전문가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금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으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

○ **(기술금융인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동력으로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이 금융과 상생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확대 추이*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기술력 및 리스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2016년도 관계형 금융을 통한 대출실적은 총2조3,411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 **(자산운용전문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금융회사 보유자산의 운용 수익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가 아닌 원자재, 금, 부동산, 에너지 등 대체투자의 자산을 발굴하고 수익분석, 위험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수익을 확보하는 전문인력 확보 중요성 제고

- 또한, 급격한 속도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노후자금 관련 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주는 자산운용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계리 전문가)** 정부의 보험상품 개발 및 가격 자유화 정책(2015.10) 시행 이후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0년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적용에 따른 위험관리 필요성 증가로 보험계리인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인력)** 국내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점포수 및 순익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등) 지역은 높은 성장가능성, 인프라확충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및 자동차할부시장

개척 등의 사유로 은행 및 여신전문업 중심으로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언어 능통자 등 관련 인력 수요 증가

* 2016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407개*(44개국)로 전년말(393개) 대비 14개 점포가 증가 ; 은행(178), 금융투자(112), 보험(81), 여전(33), 지주(3)

2. 시사점

□ **(인력수요를 고려한 공급체계 개편 요구)** 금융4.0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보험산업의 인력구조 개편에 맞춰 정부, 학교, 연수기관, 각 금융회사 등 금융·보험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금융환경변화와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로 시급히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 관련 IT 융합인력 양성)** 금융4.0시대는 IT융합인력을 핵심동력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디지털금융을 선도할 해당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됨

- 현재의 교육과정은 대다수가 기존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

- 현재는 필요한 인력을 이공계 학과 또는 IT업계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충원하고 있지만, 핀테크나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새로운 직무를 금융·보험업에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함

- 따라서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이 융합된 신규 인력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금융보험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자체 재교육 강화)** 앞서 기술한대로 현재 금융·보험 산업은 텔러·브로커 등 전통적 인력중심에서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IT융합인력 및 자산관리 전문가 등으로의 인력구조 개편이 급속히 진행 중으로 이에 대응한 신규 인력채용에 앞서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이 필수적임

□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최근 금융·보험업권에서는 핀테크와 모바일뱅킹 확산을 계기로 고비용·저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함

○ 2014년(4,393명), 2015년(5,146명), 2016년(5,332명) 등 최근 3년간 총 14,871명의 퇴직자를 양산하였으며, 금융·보험업권 내 인력 감축 추이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104] 최근 3개년 업권별 희망퇴직 현황

(단위: 명)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2금융권	계
2014년	700	2,153	1,540	-	4,393
2015년	4,094	222	525	305	5,146
2016년	3,968	422	763	179	5,332
계	8,762	2,797	2,828	484	14,871

자료: 언론기사 등 참조

○ 퇴직대상자도 과거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고위직·고연령자에서 근속 10년차 대리급 및 최저 만 3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젊은 직원의 희망퇴직 대폭 증가함 ☞ 산업내 재취업 가능성 높음

- 금융·보험 산업의 고용충격 완화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대상으로 산업 내 재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09-2016). 고용보험통계.

고용노동부. (2009-2016).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10-2017). 고용노동통계포털.

고용노동부. (2017). 직업훈련포털 HRD-Net.

금융.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산업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전략분야 발굴·조사 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2-2016).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 및 재무상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 창조경제박람회 연계 「제13차 핀테크 Demo Day」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 「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 (2017).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구성 및 운영방향.

금융투자교육원. (2017). 2017년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체계(TRM).

금융투자교육원. (2017). 교육과정 안내.

금융투자협회. (2017). 자격시험접수센터. 시험종류 안내.

보험연구원. (2017). 보험산업 고용영향 평가.

보험연수원. (2017). 2017년 연수과정로드맵.

보험연수원. (2017). 시험제도 안내.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삼성증권. (2016). 로보 어드바이저 현황과 개요.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울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자본시장연구원. (2017). 2017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이슈.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2016년도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통계청. (2007-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8).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2015). 한국직업분류(KECO).

통계청. (2017).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교육부. (210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 하나금융포커스, 제6권 50호, 저축은행 경영환경 변화와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7). 하나금융포커스, 제7권 1호,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비즈니스의 성장.

한국고용정보원. (2015).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

한국고용정보원.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4-2024.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7). 2017 한국직업전망.

한국교육개발원. (2012-2016). 교육통계연보.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7).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전망 및 고용확대방안

한국금융연수원. (2017). 자격시험안내.

한국산업은행. (2016). 산은조사월보, 제733호, 2017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참조1

지역별 특성화고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글로벌경영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무역과, 글로벌유통과	30	731	731
	고명경영고등학교	e비즈니스경영과, 금융경영과, 마케팅경영과,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사이버통신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정보처리과	24	507	507
	대경상업고등학교	경영관리과, 금융관리과	24	590	590
	대동세무고등학교	공통과정, 국제금융세무과, 세무회계과, 세무행정과	30	767	767
	덕수고등학교	글로벌 경영과, 금융회계과, 디지털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디지털콘텐츠과, 컴퓨터정보과	27	665	665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공통과정, 금융자산마케팅과, 문화콘텐츠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과	30	763	763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경영금융과, 금융경영과, 마케팅 경영과, 보건간호과,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과, 정보처리과, 피부미용과	46	1,205	1,205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관광경영과, 금융경영과, 디자인경영과, 세무회계과	36	908	908
	서울금융고등학교	금융자산운용과, 금융정보과, 금융회계과	30	726	726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국제통상과, 금융정보과, 인터넷비즈니스과	30	777	777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글로벌MD과, 글로벌경영, 글로벌디자인과, 글로벌패션과, 금융정보, 인터넷MD과	30	746	746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 금융정보과, 시각디자인과, 이-비즈니스과	61	1,561	1,561
부산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관광경영과, 금융경영과, 외식경영과	24	587	587
	부산경영고등학교	공통과정, 금융과, 경영과, 창업경영과	22	457	457
	부산마케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관광서비스과, 디자인콘텐츠과, 스포츠건강관리과, 공통계열	34	870	870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계열, 국제금융정보과, 국제통상정보과, 멀티미디어마케팅과	33	828	732
	부산정보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공통계열, 금융정보과, 세무회계과	32	814	81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금융경영과, 유통경영과, 지식경영과	30	744	744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공통계열, 스마트미디어콘텐츠과,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컴퓨터금융회계과	35	839	839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유통경영과	36	987	987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통과, 금융자산운용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개발과, 스마트콘텐츠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0	195	195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과, 금융과, 경영과	30	925	902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금융과, 공통, 인터넷비즈니스과, 국제통상과	27	798	798
인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국제물류과	9	265	265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과, 금융서비스과, 외식조리과	30	883	883
	인천세무고등학교	공통과정(전문계), 국제세무과, 세무행정과, 세무회계과	31	920	920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 국제비즈니스과, 국제통상과, 금융정보과, 디지털정보과	36	1,064	1,064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회계과, 세무회계과, 회계정보과	26	759	759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금융서비스과, 비서사무서비스과, 회계서비스과	18	588	588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보건행정과, 컴퓨터디자인과, 금융비즈니스과, 세무금융행정과, 세무보건행정과, 콜마케팅과	40	1,215	1,215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글로벌경영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디자인과	24	733	733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공통과정, 금융회계과, 사무관리과	33	951	951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금융회계과, 디자인과, 디지털공통과, 만화예술과	30	929	888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정보과, 회계경영과	30	1,850	925
울산	울산상업고등학교	경영과, 금융과, 유통과	31	934	934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 관광경영과, 국제금융과, 유통마케팅과, 행정사무과	60	2,057	2,057
세종	-	-	-	-	-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국제경영정보과, 국제관광경영과, 국제통상외국어과, 국제회계정보과	36	908	908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국제통상IT컨텐츠과, 국제통상경영과, 국제통상회계과, 글로벌뷰티경영과	45	1,143	1,143

(표 계속)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경기	경기세무고등학교	국제통상과, 세무행정과	6	79	151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관광운항과, 관광레저과, 금융정보과, 유통경영과, 재무관리과, 세무회계과	41	1,191	1,191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회계정보과, 금융경영과, 세무회계과	28	671	671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e-경영과, e-디자인과, e-디지털콘텐츠과, e-쇼핑몰과, 경영과, 디자인과, 디지털콘텐츠과, 회계과	35	877	876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	36	1,032	1,010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관광서비스마케팅과, 디지털콘텐츠마케팅과, 금융서비스마케팅과	36	905	905
	삼일상업고등학교	ERP경영정보과, 비즈니스마케팅과, 웹비즈니스과	36	1,022	1,022
	성남금융고등학교	금융IT디자인과, 금융회계과, 항공관광경영	36	938	938
	성보경영고등학교	관광레저경영과, 기업홍보디자인과, 보건간호과, 세무행정과, 외식조리경영과	121	1,184	1,184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금융자산운용과, 마케팅디자인과, 국제경영과, 세무회계과	36	1,059	1,059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 금융경영과, 금융과, 비서사무과	26	619	619
	영북고등학교	경영정보과, 부사관과	9	178	178
	오산정보고등학교	기업경영과, 회계금융과, IT콘텐츠, e-biz경영과, e-biz상거래과, e-biz컨텐츠과	27	808	798
	용인정보고등학교	글로벌통상정보과, 글로벌회계정보과, 소프트웨어과	32	939	939
	이천세무고등학교	세무정보과, 세무회계과	6	169	169
	정명정보고등학교	금융경영과, 글로벌물류유통과, 모바일디자인과, e-비즈니스과	36	740	740
	청담고등학교	금융경영과, 글로벌마케팅과, 인터넷정보과, 네트워크디자인과, 비즈니스복지과, 비즈니스영어과	27	810	779
	평촌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과, 스마트콘텐츠과, 회계금융경영과	39	1,121	1,121
	하남경영고등학교	광고홍보디자인과, 금융회계과, 디지털콘텐츠과, 서비스경영과, 전자상거래과	36	908	908
강원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회계경영과, 금융정보과	6	67	67

(표 계속)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강원	동해상업고등학교	광고디자인과, 금융회계과, 웹콘텐츠디자인과	18	337	327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금융회계	3	74	74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토목과	9	231	231
	횡지정보산업고등학교	디지털컨텐츠과, 마케팅정보과, 회계금융과	9	110	110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사무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	30	980	969
	보은정보고등학교	회계사무과	6	152	142
	영동인터넷고등학교	금융회계과, e비즈니스과, 보건간호과	14	343	343
	제천상업고등학교	E-비즈니스과, 금융과, 서비스마케팅과	24	624	624
	증평정보고등학교	금융회계, 뷰티미용, 유통마케팅, 조리과학	18	476	476
	진천상업고등학교	E-비즈니스과, 금융마케팅과	12	353	353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경영회계과, 금융정보과	24	767	767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금융회계과, 마케팅경영과, 인터넷 상거래과	18	461	461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e-비즈니스과, 유통경영과, 금융정보과	30	915	931
	충주상업고등학교	경영회계과, 마케팅경영과	24	654	654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경영회계과, 공공응용디자인과, 디자인경영과, 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뷰티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27	718	718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전산회계정보과	15	333	333
	공주정보고등학교	경영정보과, 영상정보과, 금융정보과	12	306	306
	당진정보고등학교	공통과정, 디지털경영과, 세무회계과, 회계정보과	27	806	806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금융회계과	18	434	434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e-shop경영과, e-shop디자인과, 회계정보과	10	171	171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 금융정보과, 디지털정보과	42	1,473	1,473
충남	충남인터넷고등학교	금융회계과, 인터넷상거래과	12	261	261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전북	군산상업고등학교	공통과정(실업계), 금융정보과, 세무행정과	30	870	870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경영회계학과, 공통과정(전문계), 금융정보과	30	873	873
	덕암정보고등학교	금융정보과, 금융정보과 금융회계전공, 금융정보과 상업정보전공, 조리미용과, 조리미용과 미용전공, 조리미용과 조리전공	26	717	717
	완산여자고등학교	금융통상학과, 회계정보과	23	621	621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e-비지니스과, 금융정보과, 회계정보과	24	713	713
전남	목포성신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인터넷정보과, 정보처리과	13	262	262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정보, 세무행정, 보건경영	36	899	899
	벌교상업고등학교	금융회계과, ERP정보관리과, 컴퓨터활용과	12	212	217
	병영상업고등학교	금융회계과	3	77	77
	순천청암고등학교	금융회계과, 보건간호과, 그래픽디자인과, 보건경영과	33	861	861
	순천효산고등학교	관광조리과, 금융정보과, 보건경영과, 사무행정과, 컴퓨터디자인과	27	683	683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관광경영과, 관광조리과, 금융정보과, 산업디자인과	36	920	920
	진성여자고등학교	금융과, 사무행정과, 전산정보과	27	677	677
경북	감포고등학교	사무자동화과	3	52	52
	강구정보고등학교	유통경영과, 회계정보과	5	65	65
	경북인터넷고등학교	경영서비스과, 금융회계과	6	143	143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골프산업과, 보건간호과, 회계정보과	15	492	492
	경주마케팅고등학교	유통회계과	3	36	36
	경주정보고등학교	e-비지니스, 관광경영과, 물류유통과, 세무회계과, 컴퓨터응용디자인	27	886	886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경영회계과, 웹디자인과, 회계금융과	21	591	591
	구미정보고등학교	글로벌유통과, 금융정보과	18	490	490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6	104	104

지역	학교명	학과	학급수	정원	현원
경북	명인정보고등학교	금융정보과, 마케팅물류과, 인터넷비즈니스과	9	233	233
	봉양정보고등학교	경영회계과	3	49	49
	영천상업고등학교	마케팅과, 회계정보과	6	133	133
	평해정보고등학교	금융회계과, 유통정보과, 인터넷정보통신과, 정보처리과	6	130	130
	효청보건고등학교	금융정보과, 기업경영관리과, 보건간호과	12	257	257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인터넷비즈니스과, 회계금융과	18	351	351
	경남정보고등학교	금융경영과, 컴퓨터정보과	18	430	430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공통과정, 멀티미디어과, 물류유통과, 세무금융과	27	681	681
	밀성제일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보건간호과	21	437	437
	사천여자고등학교	금융정보, 유통정보과, 회계정보	12	281	281
	선명여자고등학교	경영정보과, 금융회계과, 사무자동화과, 외식조리과, 정보처리과	33	786	786
	신반정보고등학교	관광경영과, 사무자동화과	6	125	125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회계금융과, 글로벌유통과, 디지털콘텐츠과	24	750	750
합계	151	-	2,866	75,372	74,285

자료: 교육부. (201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현황(2017.04.03)

참조2

금융연수원 교육체계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기업금융	기업금융마케팅	• 기업금융업무의 이해(사) • RM실무 초급(집) • 기업금융종합마케팅(통) • 실전 영업점 마케팅 코칭(통) • 기업세무기초(통) • 퇴직연금(통)	• 기업금융마케팅/영업역량 강화실무(집) • 전략적 여신고객 관리(집) •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 Ⅰ(통) •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Ⅱ (통) • 금융상품개발(집) •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집) • 퇴직연금 마케팅 실무(사)	• 기업여신 종합전문가(컨설팅)(집)(신)	• 중소기업금융상담사(민간자격)
	기업회계및재무	• 회계원리와 재무제표분석(집) • 기업회계기초(통) • 금융인을 위한 회계첫걸음(사) • 재무관리(집) • 기업재무관리기초(통)	• 주말 직무핵심(재무제표분석 사례연구)(집) • K-IFRS 재무제표분석(집) • IFRS 해설(집) • 금융인을 위한 K-IFRS(사) •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분석(통) • 재무제표분석(사)	• 현금흐름분석과 사례연구(집) •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분석 사례연구(집) • 엑셀 VBA와 함께하는 재무제표분석(집)	
	여신심사및관리	• 여신심사기초(통) • 기술금융기초(통) • 기업구조조정 기초(통)(신) • 한 달만에 끝내는 사업타당성분석(사) • 산업분석기초(통) • 부동산경매기초(통) • 알기 쉬운 부동산 경매실무(사)	• 부실기업징후 및 여신 사후관리(사) • 여신심사(집) • 중소기업여신심사(통) • 소호여신심사(집) • 소호여신심사실무(사) • 기업구조조정 중급(집) • 전략적 여신의사결정(사) • 기업가치평가(집) • 기업가치평가 실무(통) • 산업분석(중공업/섬유.화학 등/건설업/전자 등/식음료/유통.운송/미래신기술(신))(집)	• 기술금융(집) • 기업여신 종합전문가(구조조정)(집)(신) • 기업여신 종합전문가(여신심사)(집)(신) • 기업여신 종합전문가(여신관리 및 회수)(집)(신) • CRA(신용위험분석사)대비 Level1(집) • CRA(신용위험분석사)대비 Level2(집) • 여신심사 및 관리(CRA 자격시험대비)(사) • 기업부실예측(집)	• 여신심사역(국가공인자격) • CRA신용위험분석사(국가공인자격)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기업금융	여신심사및관리		• 부동산경매실무(통) • 부동산권리분석(통) • 부동산 NPL 권리분석(집)	• 산업별 여신심사 실무사례연구(자동차/기계, 조선/철강, 화학/제약, 건설/부동산, 전자/통신)(집) • 부동산경매분석(여신담보처분위주)(집) • 감정평가(여신담보취득위주)(집)	
	기업신용분석	• 신용분석 기초(통) • 신용분석의 입문(사)	• 신용분석(집) • 중소기업 신용분석(집)	• 기업신용분석 사례연구(집)	• 신용분석사(국가공인자격)
개인금융	개인금융마케팅	• 성과향상을 위한 영업점세일즈(사) • 비대면고객 마케팅(집) • 개인금융종합마케팅(통) • 금융마케팅 기초(통) • 신용카드업무기초(통) • 방카슈랑스업무기초(통) • 금융투자상품 판매전략(통)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사)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사) • 채무증권 투자권유 실무(사) • 채무증권 투자권유 실무 보수교육(사) • 여신담당자를 위한 리스실무 기초(통) • 은행텔러(사)	• 고객유형별 상담.영업전략(집) • 개인금융 영업력 강화를 위한 세일즈 기법 및 코팅(집)(신) • 신용카드 마케팅 실무(사) • 주말 직무핵심(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전략)(집) • 실전펀드 판매전략(집) • 펀드상품상담(사) • 소매여신 리스크관리(집) • 소매금융의 이해와 실무(집) • 개인신용평점(CSS)의 이해 및 활용(집)		• 은행텔러(민간자격)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개인금융	자산관리	• 은퇴설계전문가-Core(통) • 개인세무와 절세전략(사) • 개인세무기초(통) • 자산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설계(통)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자산관리(통) •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노하우(사) • PB입문(집) • 개인고객상담기초(통) • FP(금융상품, 부동산, 세무)(통) • 자산관리사(FP) Ⅱ(통) • 자산관리사(FP) Ⅰ(통)	• 은퇴설계전문가-Master(집) • 상속증여 및 은퇴설계(집) • 고객상담을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실무(통) • 주말 직무핵심(가업승계와 세무전략)(집)(신) • 신탁업무의 이해와 활용(집)(신) • PB를 위한 경제지표 분석 및 활용(집) • 투자설계 실무(집) •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집) • PB전문(집) • PB를 위한 방카슈랑스 실전 판매전략(집) • FP실무(경기분석과 재무설계, 종합세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금융자산 투자설계, 부동산 투자설계)(집)	• 은퇴설계전문가를 위한 실무 사례연구(집) • PB 영업 실무능력 향상(집)	• 자산관리사(국가공인자격)
	부동산투자	• 부동산 투자상담 기본(사) • 주거용 부동산 매입가이드(집) • 부동산 기본지식(통) • 부동산 관례법률(통)	• 부동산투자상담(집) • 부동산세금설계(사) • 부동산투자상담 및 세금설계(사)		
외환	외환	• 외환입문(통)	• 개인고객영업을 위한 외환업무(집) •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집) • 여신전문가 외환업무(집) • 외환실무전문가(개인금융)(통)	• 외국환 위규사례 해설(사) • 외국환업무사례(법규)(집)	• 외국환업무(자격과정)(통) • 외국환거래업무(자격 과정)(집) • 외국환거래업무(사)(자격과정)(사) • 외환전문역 Ⅰ종(국가공인자격)
	수출입	• 수출입업무기초(통) • 무역영어기초(통)	• 외환실무전문가(기업금융)(사) • 수출입실무(집) • 신용장관련규칙 및 Case Study(집) • 신용장업무(통)	• 외국환업무사례(수출입)(사) • 외국환업무사례(신용장)(사)	• 외국환전문역 Ⅱ종(국가공인자격)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IB/국제금융		• IB업무기초(통) • IB첫걸음(사) • 국제금융기초(통)	• IB업무역량강화(집) • M&A(집) • 커버드 본드의 발행과 유통(집) • 자산유동화(집) • 론 신디케이션(집) •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집) •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집) • 부동산금융(집) • 해양.선박금융 실무(집) • 국제금융(집) • Reuters를 활용한 국제금융시장분석(집)	• M&A Financing(집) •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사업성평가(집) •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성평가(집) • 부동산금융 전문(집) • Global IB Program(GIBP)(집)	• 국제금융역(국가공인자격)
자산운용	투자전략	• 금융시장분석(집) • 증권투자기초(통) • 한눈에 보이는 증권시장 분석(사) • 채권 투자 기초(통)(신) • 대체 투자 기초(집)(신) • 원자재시장의 이해(집)	• 엑셀VBA와 함께하는 투자분석(집) • 자산운용전문인력(집) • 주식운용전문가(집) • 채권운용전문가(집) • 채권 및 금리파생상품 투자전략(집) • 사모펀드(PEF)(집)	• 글로벌자산운용전문가(GPMP)(집) • 금융공학전문가(FEP)(집)	
	파생상품	• 파생금융상품 이해(집) • 파생상품입문(사) • 금융선물.옵션기초(통)	• 파생금융상품(집) • 옵션거래(집) • 스왑거래(집) • 장외파생상품 실무(집) • 복합금융상품(집) • 신용파생상품(집) • 주식파생상품과 주식연계 구조화 상품(집)		
리스크관리		• 리스크관리기초(통)	• 바젤 Ⅲ의 핵심포인트(집) • 바젤 Ⅱ, Ⅲ와 금융회사 대응전략(집) • 바젤 Ⅱ, Ⅲ와 리스크관리(집) • 리스크관리(집)	•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집)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법률/컴플라이언스	금융실무법률	• 주말 직무핵심(금융실무 법률 기초)(집) • 민.상법기초(통) • 수신법률기초(통) • 어음.수표법기초(통) • 청구실무법률(사) • 자본시장법의 이해(집)(신) • 여신법률(채권계약)기초(통) • 여신법률(담보관리)기초(통) • 여신법률(채권회수)기초(통) • 개인고객상담법률(가계여신)(통)	• 수신법률사례(사) • 어음.수표실무사례(사) • 신탁실무법률(집) • 여신법률(집) • 여신법률사례(계약)(사) • 여신계약의 체결 및 관리(집) • 담보의 취득 및 관리(집) • 근저당권의 취득관리.실행 실무(집) • 동산.채권 담보제도(집) • 여신법률사례(채권회수)(사) • 여신채권의 회수(집) • 민사집행(집) • 회생과 파산에 관한 실무법률(집) • 영문금융계약서의 이해와 검토(집)	• 여신실무법률 사례연구(집)	• 여신심사역(국가공인자격)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사)	• 컴플라이언스 오피셔(통) • 컴플라이언스 업무역량강화(집) • 내부통제의 역량강화(집) •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의 이해(집) • 자금세탁방지(사) •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 • 감사 아카데미(중급)(집) • 감사 아카데미(IT)(집)	• 감사 아카데미(고급)(집)(신)	•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민간자격)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스마트금융	• 핀테크 비즈니스 실무(집) •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통)(신) • 파이낸셜 씽킹-핀테크가 만드는 미래 금융(사)(신) • 스마트금융을 위한 기초 법률(집)(신) • SNS를 활용한 금융 바이럴 마케팅(집) • 금융 ICT 트렌드 및 기술분석(집)(신) • 빅데이터 활용과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사)	• 글로벌 핀테크 기업 사례연구(집)(신)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의 혁신점포(집)(신) • 금융4.0시대의 디지털 마케팅(집)(신) • 국내외 스마트뱅크 플랫폼 분석(집)(신) •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집)(신)	• 모바일금융 UX/UI 기획(집)(신) • 금융 빅데이터 분석 사례연구(집)(신)	
경영공통	• 프레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집) • 역사 톡! 톡! 인물로 보는 삶의 지해(사) • (10분 독서) 책으로 미래를 보다(사)(신) • 전략 기획 인재 양성(집) • 일 잘하는 조건, 전략적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사) • R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기초(집) • R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집)(신) • 초급 통계분석(SAS)(집) • 금융경제기초(통) • 은행실무기초(통) • 비즈니스 매너와 의전 사례연구(집)(신) • 금융인을 위한 생애설계(집)(신)	• 프리젠테이션 스킬향상(집) • 금융인을 위한 협상전문가(집) • 중급 통계분석(SAS)(집)	• 금융회사 퇴직 예정자 지원교육(집)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자격
글로벌	• 금융영어회화기초(사) • 비즈니스 중국어 기초(사) • 동남아시아 지역 금융의 이해(사)(신)	• 금융비즈니스영어(사) • 금융비즈니스영어 회화(사) • 금융비즈니스영어 작문(사) • 현지 지역전문가(베트남, 인도네시아(신), 중국(신))(집) • 해외사업 진출 실무(집)	• Global Financial Leaders Program (집)(신)	
HR/IT	• 팀원의 성장을 돕는 성과중심 인사평가(사)(신) • Power 컴퓨터활용(통) • 파워포인트2010(사) • 엑셀(집) • 직장인의 자격 엑셀2010(사) •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기기 활용(집)(신)	• 강사양성(집) •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스킬(집)(신) • 문자작성을 위한 컴퓨터 활용 실무(집)(신)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집) • 엑셀2010 함수와 매크로 활용(사)	• 금융HR이러(집)(신)	

주: (집)은 집합교육, (통)은 통신교육, (사)는 사이버교육이며, (신)은 2017년 신규과정임
자료: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연수과정로드맵.

구분	팀원	책임자	관리자	경영자
경영관리	• 삼국지 경영의 지혜: 이문열에게 듣는다(사)(신) • 커피로부터 배우다! 롱런 전략의 비밀 15가지(사)	•	• 예비경영자(Pre-CEO)(집) • 지점경영(집) • 영업점 성과평가 관리(집) • 은행지점경영의 성공전략과 실천(통) • 영업점관리자(통)	• 금융최고영영자(집)
리더십	• 신입사원을 위한 셀프리더십(집)	• 팀장을 위한 금융리더십(집)	• 지점장을 위한 금융리더십(집)	
		• 금융인을 위한 리더십개발(통) • 여성금융리더 양성(집) • 소통 나이스샷!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사)		

주: (집)은 집합교육, (통)은 통신교육, (사)는 사이버교육이며, (신)은 2017년 신규과정임
자료: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연수과정로드맵.

참조3

보험연수원 교육체계

구분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보험직무	손해보험직무	• 손해보험과정(집) • 손해보험과정(통) • 해상보험기초과정(집) • 손해보험과정(사)	• 화재보험과정(집) • 특종보험과정(집) • 배상책임보험과정(집) • 패키지보험실무과정(집) • 재보험실무과정(집) • 보험사기예방과정(자동차보험)(집) • 자동차보험 약관해설(사)	• 기술보험전문가 과정(집) • 재보험전문가양성과정(집) • 해상보험전문가과정(집)
	생명보험직무	• 생명보험과정(집) • 생명보험과정(사) • 생명보험과정(통) • 생명보험 관계법령 이해하기(사)	• 생명보험 중개사과정(통)	
	보험직무(공통)	• 보험수리 기초과정(집) • 보험회계 기초과정(집) • 퇴직연금 기본교육과정(집) • 보험계약법(사) • 보험마케팅 실무(사) • 보험수리기초(사) • 적합성 원칙해설(사)	• 리스크 관리과정(집) • 보험회계 전문과정(집) • CFP 기초서류 작성 및 실습과정(집)	• 퇴직연금전문가양성과정(집) • 핵심계리전문인력양성과정(집) • 보험의학(내과)(사) • 보험의학(암)(사) • 배상의학(신경외과)(사) • 배승의학(정형외과)(사)
	보험영업		•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사) •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보험상품 완전판매전략(사) • 현장에서 필요한 보험 속세무 Master 과정(사) • 변액보험 판매관리사과정(사) • 보험판매기법향상과정(통)	
	의료연수	• 의료연수초급과정(신경/정형외과) (집) • 의료연수초급과정(신경/정형외과:공제)(집) • 의료연수지방순회교육(집)	• 의료연수중급과정(신경/정형외과)(집) • 의료연수중급과정(신경/정형외과:공제)(집) • 의료연수특과과정 Part Ⅰ (집) • 의료연수특과과정 Part Ⅱ (집) • 의료연수특과과정(공제)(집) • 후유장해등급판정과정 (인보험/일반보험)(집) • 후유장해등급판정과정 (배상책임)(집)	
	손해사정사	• 3종 대인의학이론 (상해)(집) • 4종 의학이론 (상해/질병)(집) • 보험업법(동영상)(사) • 보험계약법 마스터과정(사)	• 손해사정이론(손사2차 공통)(집) • 제3보험 손해사정실무(손사4종 2차)(집) • 보험관계법(사) • 보험이론 및 실무(사) • 의학이론(질병)(사) • 의학이론(상해)(사) • 제3보험이론(사)	

구분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전문자격	보험계리사	• 보험업법(동영상)(사) • 보험계약법 마스터과정(사)	• 보험이론 및 실무 (계리2차)(집) • 보험수리(계리2차)(집) • 손해사정이론(사) • 의학이론(사)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사)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사) • 자동차보험이론(사) • 손해사정이론과정(통) • 자동차보험 대인손해사정 실무과정(통)	
	보험대리점	• 손해/제3보험 대리점창업과정(집)	•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연수과정(사) • 생명보험 대리점연수과정(사) • 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연수과정(사) • 손해보험 대리점연수과정(사) • 제3보험 대리점연수과정(사)	
	보조인	• 손사보조인 교육과정 (3종대인)(집) • 손사보조인 교육과정(4종)(집)		
	CKLU/AKLU	• CKLU	• New CKLU(사) • AKLU(사) • AKLU(Step5 /의학개론)(사) • AKLU(Step6 /보험리스크 평가)(사) • AKLU (Step7/보험계리 및 재보험기초)(사) • AKLU (Step8/보험세제 및 재무이론)(사) • CKLU과정(통)	
	IFP		• 종합자산관리사(IFP)시험대비과정(사) • 종합자산관리사(IFP)과정(통)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집) •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사)	

구분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전문자격	보험심사역		• 보험심사역 시험대비과정(공통)(집) • 보험심사역 시험대비과정(기업)(집) • 보험심사역 시험대비과정(개인)(집) • 보험심사역 핵심요약과정(공통)(집) • 보험심사역 핵심요약과정(기업)(집) • 보험심사역 핵심요약과정(개인)(집) • 개인보험심사역(사) • 기업보험심사역(사) • 개인보험심사역(전문)(사) • 기업보험심사역(전문)(사)	
재무/법률		• NEW 재무이해(사) • NEW 회계기초(사) • NEW 회계이해(사) •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사)	• 보험회계 전문가과정(집) • 보험법률 전문가과정(집) • 보험관련법 사례분석과정(집) • 실무에 강한 재무제표 분석 노하우(사) •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법률과 채권관리(사)	
경영			• 고객가치를 경영하라(사) •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와우'로(사) • 고객감동을 위한 CS 혁명(사)	
마케팅			• 사례중심의 전략적 마케팅(사) • 영업불패! 영업도 전략이다(사) • 전쟁론에서 배우는 마케팅전쟁(사)	
자기개발			• 내가 만드는 성공스토리, 경력개발전략을 펼쳐라!(사) • 컨설턴트처럼 비즈니스 라이팅하라(사) • 컨설턴트처럼 사고하고 실행하라(사) • 컨설턴트처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라!(사) • 핵심인재들의 시간관리 전략(사) • Skill up! 기획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사)	
금융			• 알고보면 쉬운 선물옵션(사)	
리더십			• 성과향상을 위한 리더십(사) • 실전! 비즈니스 마법의 코칭(사) • 여성리더십(사) • 팀웍과 팀성과! 두 마리 토끼잡기(사) • Build up! 시니어 리더십(사) • Build up! 주니어 리더십(사) • Passion! 백만불짜리 열정	• 보험 최고경영자 아카데미(집) • 정책 세미나(집)
OA		• Excel2003 따라하기(사) • Powerpoint2003 따라하기(사)		

주: (통)은 우편원격과정, (집)은 집합과정, (사)는 사이버교육을 의미함
자료: 보험연수원. (2017). 2017년 연수과정로드맵.

참조4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체계

☐ 금융직무

구분	PCP	입문	실무
주식운용		• 가치투자분석 • 기술적 투자분석 • 경제지표 활용과 금융정보 습득 및 활용 • 스마트베타전략과 R • R언어를 활용한 금융시뮬레이션	• China 융투자 • 연기금 자산운용 • Quant 모델링 실습 • 엑셀 VBA 기초 및 주식모델링 • 퀀트관점의 기술적 분석 활용 • ㈜기업재무제표분석 • ㈜투자정보분석 • ㈜사례를 통한 기술적 분석 • ㈜업종 및 기업분석 • ㈜주식실전매매
채권운용	• 채권운용 PCP	• 채권투자 이해 • ㈜채권기초	• 해외채권 투자분석 • 엑셀을 활용한 실전채권투자 • 채권운용 • NPL 가치평가 • 기업신용분석 • ㈜리테일 채권영업실무 • ㈜채권운용실무
파생상품 운용	• 파생상품(FICC+Equity) PCP • 금융공학 PCP	• 엑셀 VBA를 활용한 금융공학 • ㈜선물옵션 기초 • ㈜장외파생상품 기초 • ㈜ELS 개요 및 투자전략	• FICC 상품 • 금리파생상품 • 신용파생상품 • 외환파생상품 • ETF시장 이해와 활용 •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 • 파생결합상품 • ㈜해외선물옵션 이해 • ㈜선물옵션 실전매매 • ㈜FICC 상품 • ㈜파생결합증권
대체투자	• 대체투자PCP • 부동산금융 PCP	• AI실무 • ㈜헤지펀드 기초	• 프라임브로커 • 부동산 개발 • 부동산금융 법규 • Project Financing • 사모펀드(PEF) • 재개발 재건축 실무 • 해외 대체투자 • 해외 사모펀드 투자 • 부동산신탁 실무 • 모험자본 투자 • ㈜부동산 금융 • ㈜사모펀드(PEF)
IB	• IB PCP	• IB 업무이해 • ㈜기업가치평가 기초 • ㈜IB 기초	• IB Deal 사례연구 • 증권발행 및 상장 • 자산유동화증권 • M&A • 기업가치평가 실무 • 신용공여와 리스크관리 실무

구분	PCP	입문	실무
자산관리		• 금융상품의 이해	• 빅데이터 활용과 금융비즈니스 • 신탁업무 이해 • 리테일 신상품 • Family Office 전문가 과정 • 베트남 금융투자 • 인도 금융투자 • 필리핀 금융투자 • 인도네시아 금융투자 • 미국 금융투자 • 영국 금융투자 • ㈜펀드판매실무 • ㈜금융영업 커뮤니케이션 • ㈜금융상품 비교분석 • ㈜고객자산관리 실무 • ㈜금융투자 세무 • ㈜알면 돈이 되는 TAX Vitamin
금융영업 지원		• 금융투자직무 기초(증권) • 금융투자직무 입문(증권) • ㈜회계 첫걸음 • ㈜알기쉬운 IFRS Basic • ㈜신탁관련법규 기초	• 증권사 영업활동별 리스크관리 • 금융투자법규 • 증권사 내부통제 •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 부동산신탁사 내부통제 • 투자자문사 내부통제 • 금융보고서 작성실무 • 고객응대직원 보호 • ㈜K-IFRS Ⅰ • ㈜K-IFRS Ⅱ • ㈜금융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법 실무 • ㈜심청이와 함께 배우는 똑소리나는 재무회계 첫 걸음 • ㈜고객을 움직이는 성공 CS비법 • ㈜금융소비자 보호 • ㈜판매 프로세스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2017). 2017년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체계(TRM).

☐ 공통직무

구분	교육과정
맞춤교육	• 금융투자 직무입문 (집합투자) (예시) • 금융투자 직무입문 (파생) (예시)
금융영어	• Financial Business English(초중급) • Financial Business English(고급) • Financial Business English(기관·법인 맞춤형)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2017). 2017년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체계(TRM).

▢ 자격과정

구분	교육과정
자격준비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부동산투자자문인력 • 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운용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성 교육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성 교육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 • ㈐준법교육 • ㈐펀드판매인력 필수 교육
등록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채무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 • ㈐신탁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투자자문/일임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파생상품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사전교육
보수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보수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 • ㈐투자자산운용사 보수 • ㈐위험관리전문인력 보수 • ㈐금융투자분석사 보수 • ㈐투자상담관리인력 보수 •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 ㈐신용평가전문인력 보수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2017). 2017년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체계(TRM).